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에라스무스, 루터, 칼빈의  
교육사상 비교연구

2004년 12월

창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철학전공  
이 상 오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에라스무스, 루터, 칼빈의  
교육사상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the Educational  
Thoughts among Erasmus, Luther and Calvin


지도교수 김 기 민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12월

창 원 대 학 교 대 학 원  
교육학과 교육철학전공  
이 상 오

이상오의 교육학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정영애 

심사위원 최요한 

심사위원 김기민 

2004년 12월 일

창원대학교 대학원

# 차 례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
II. 인간이해 .....	5
1. 에라스무스 .....	5
가. 이성의 완성 .....	5
나. 이성적 존재 .....	6
다. 자유의지 .....	7
2. 루터 .....	9
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는 인간 .....	9
나.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지는 인간 .....	10
다. 인간의 노예의지 .....	10
3. 칼빈 .....	11
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	12
나. 타락한 인간 .....	13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인간 .....	13
III. 교육목적 .....	15
1. 에라스무스 .....	15
2. 루터 .....	17
3. 칼빈 .....	20
IV. 교육내용 .....	24
1. 에라스무스 .....	24
2. 루터 .....	27
3. 칼빈 .....	30

V. 교육방법 .....	37
1. 에라스무스 .....	37
2. 루터 .....	43
3. 칼빈 .....	46
VI. 교육실천 .....	52
1. 일반교육에서의 실천 .....	52
가. 에라스무스 .....	52
나. 루터 .....	53
다. 칼빈 .....	55
2. 기독교교육에서의 실천 .....	57
가. 에라스무스 .....	57
나. 루터 .....	58
다. 칼빈 .....	60
VII. 논의 .....	65
1. 일반 교육에 주는 시사점 .....	65
가. 에라스무스 .....	65
나. 루터 .....	67
다. 칼빈 .....	68
2. 기독교 교육에 주는 시사점 .....	69
가. 에라스무스 .....	69
나. 루터 .....	70
다. 칼빈 .....	71
VIII. 요약 및 결론 .....	74
참고문헌 .....	78
ABSTRACT .....	83

## 표 차례

### <표Ⅱ-1>

에라스무스, 루터, 칼빈의 교육적 인간이해 비교 .....14

### <표Ⅲ-1>

에라스무스, 루터, 칼빈의 교육 목적 비교 .....23

### <표Ⅳ-1>

에라스무스, 루터, 칼빈의 교육 내용 비교 .....36

### <표Ⅴ-1>

에라스무스, 루터, 칼빈의 교육방법 비교 .....51

### <표Ⅵ-1>

에라스무스, 루터, 칼빈의 교육실천 비교 .....64

### <표Ⅶ-1>

에라스무스, 루터, 칼빈의 논의 비교 .....73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1469-1536), 루터( Martin Luther, 1483-1546), 칼빈(Calvin Johannes, 1509-1564)은 르네상스(Renaissance)와 중세시대의 어둠을 뚫고 새로운 개혁 시대를 열어간 사람들이다. 이들의 개혁은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요소만이 아니라 그것들의 깊은 밑바닥에 깔려있는 사상적, 정신적 변화를 배경으로 일어났고, 그것은 교육적 개혁으로 나타났다.

이 당시 문예부흥의 과급, 확대와 경제의 부상 등 여러 형태의 문화의 번영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새 적응이 필요하게 되었고, 종교개혁에 있어서 교육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였다. 이러한 종교개혁의 심대한 자극은 종교뿐만 아니라, 그 힘이 유럽의 전반적인 생활, 특히 교육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끼칠 만큼 컸다. 교회와 수도원 학교의 몰락을 촉진시키고 교육의 보다 광범위한 목적과 기능이 개선되었다.

이로 인하여 교육은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게 되었다. 에라스무스를 중심으로 한 인본주의 교육사상과 루터와 칼빈을 핵으로 한 새로운 기독교교육사상은 서로 떨어진 곳에서 제시되었었고, 그들의 교육 활동 또한 서로 분리된 채 진행되었다. 이처럼 구별되어지는 그들의 입장은 때에 따라 심한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다.

에라스무스는 르네상스 시대에 대표적인 인문주의 교육자이다. 그의 인문주의 교육은 중세교육이 소홀히 했던 인간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할 수 있고, 인간완성을 위한 교육을 추구하였다 할 수 있다. 그는 인문주의 교육과 종교개혁기의 교육의 전환점에서 끝까지 인문주의를 고수코자 한 인문주의 교육의 완성자이자, 오늘날 현대교육에 끼친 인문주의 교육의 영향을 주고 있는 교육사상가이기에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자 한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그의 교육사상의 실천을 통하여 더욱 내실화되고 구체화되어 갔으며, 이를 통해 점차 근세 교육의 밑바탕인 초등교육, 중등교육, 대학교육의 골격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루터에 대한 신학사상이나 정치사상에 대한 많은 연구에 비하여, 그의 교육사상에 대한 연구가 적다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새로운 연구를 하게 되는 필요성이다.

루터는 16세기의 어떤 종교개혁자들 보다 교육에 관하여 많은 것을 남겼다. 그는 학교를 새로운 교과과정을 수립했으며, 교육에 관하여 설교, 소책자, 주석, 요리문답, 서신 등을 출판하였고, 주요한 교회와 성서의 혁신 사업도 본질적으로 교육사업의 방법을 이용하였고, 대학의 교수로서 매우 광범위하게 걸쳐서 개혁을 이야기함으로써 서양 사상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의 개혁은 정치, 사회, 교육 등 인간의 정신사를 개혁한 힘찬 정신운동이었다. 루터는 기독교교육의 개척자였고, 현대교육의 선구자였다(지원용, 1961: 8). 성경을 기초로 한 독특한 교육 원리를 구상한 사람이다. 요즘 우리의 시대는 교육의 선진화를 내세우고, 전인교육을 강조하며, 교육개혁을 위한 각종 안을 검토하고 발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참되고, 바람직한 교육을 원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루터의 교육사상을 살펴보고 연구함으로써, 오늘의 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칼빈은 신학자, 목회자, 저술가인 동시에 교육 실천가였다. 그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종교개혁의 성패가 교육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그렇기에 칼빈의 목회는 교육목회였고, 모든 활동은 교육과 직결되어 있으며, 이것은 저술, 설교, 학교, 가정, 국가라는 영역에서 항상 연계되어 있었다.

그는 비록 교육사상을 실천적으로 감당한 교육자이다. 그는 하나님 중심적인 교육의 이론적이며 실천적인 발전에 공헌한 사상가이며, 개혁주의적인 교육의 이론과 실천에 가장 확고한 기초를 놓은 사상가로 평가 될 수 있다.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사회에 칼빈의 교육사상이 그 교육적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기에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에라스무스, 루터, 칼빈은 개혁자로서의 결실이 사실상 교육적 개혁과 실천에 있었다고 본다. 즉 이들은 종교교육과 그 시대의 교육에 ‘프락시스’라고 볼 수 있다.

기독교 교육의 이론 중 최근 주목할 만한 이론은 ‘프락시스’(praxis)의 개념을 중시하는 ‘프락시스’ 접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론이나 원리를 단순히 응용하거나 전수하는 어떤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론과 실천의 종합을 지향하는 것이다(손원영, 2002: 184). 프락시스는 그리스어로 ‘실천’을 뜻하는 것으로, 프락시스는 실천 속에 이론이 담지 되어 있고, 실천이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이론과 실천의 변증법적 과정”을 의미한다.

에라스무스, 루터, 칼빈은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같은 고민은 교육이 교회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게 되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교육적 이론과 실천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서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활동을 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정황 가운데 그들이 그 시대의 교육을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것은 각자가 지녔던 교육적 신념이 대단하였다고 본다. 그러므로 에라스무스, 루터, 칼빈의 교육사상을 비교 연구한다는 것은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연구내용은 에라스무스, 루터, 칼빈의 인간이해 중에서 ‘이성’과 ‘자유지’의 부분을 중점으로 비교 고찰해 보고, 그리고 각자의 교육목적, 내용, 방법, 실천, 교육에 주는 시사점 등을 체계화하여 연구하며, 이들을 통해서 기독교교육과 일반교육에 주는 바른 자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첫째로 에라스무스, 루터, 칼빈 연구의 숲을 보기 위한 연구로, 생애에 관한 책, 서양교육사, 개론적인 책, 인접한 글 등을 세 사람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도록 하였다. 둘째로 나무를 보기 위한 연구로 1차 적인

자료인 전집 등을 중심으로 연구토록 하고 현재 연구 발표된 자료와 학위 논문 등을 첨가하였다. 셋째로 전체적인 교육사상의 개념 정립과 현장감을 살리는 방법으로 전개 될 것이다.

이 세 사람을 비교 연구를 통해서 종합적 이해에 접근하도록 하며, 그 시대에 미친 교육의 영향을 분석하고, 현대 교육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기독교교육과 일반교육에 질적인 성장의 영향을 주기를 원한다.

## Ⅱ. 인간이해

### 1. 에라스무스

에라스무스에게 있어서 교육의 문제는 다른 어떤 사상가보다도 본질적으로 인간의 문제와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는 교육을 인간의 본성과 연결시켜서 보았다. 그는 인간이 필연적인 존재이고 교육 가능한 존재임을 설명함으로써 인간의 현상태(Sein)와 인간이 되어 가는 과정(Werden)을 교육과 관련시켜서 설명하였다. 따라서 에라스무스에게는 교육의 문제는 곧 인간의 문제이다(양금희, 1999: 230).

에라스무스의 인간이해를 살펴봄으로써 그의 교육사상을 이해하는데 기초적인 도움이 된다.

#### 가. 이성의 완성

에라스무스의 인간이해는 르네상스 인문주의에서 왔다고 볼 수 있다.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은 인간 본성의 근본 구조를 플라톤적 이원론의 틀 안에서 본다. 즉 인간은 영과 몸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한다(이형기, 1990: 31).

에라스무스는 그의 초기 작품인 *Enchiridion*에서 인간에 관한 이해들을 서술하였다. 여기서 인간이해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것은 플라톤적인 이원론이다. 그는 플라톤이 그의 저서 “티마이오스”에서 서술한 부분을 인용하고 있다. “신은 인간 안에 두 개의 혼을 넣어 주었는데 하나는 영적이고 불멸의 속성을 갖고 있고, 다른 하나는 여러 욕정에 사로잡혀 있다”(양금희, 1999: 231, 재인용). 이처럼 인간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한 부분이 영혼이고 다른 한 부분이 육체라는 것이다.

또한 에라스무스는 인간은 영혼으로 보아 동물들보다도 훨씬 높은 존재

라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영혼은 인간 안에 있는 신적인 것이다. 영혼은 우리를 천사보다도 높게 될 수 있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인간은 육체가 없었다면 신적인 존재였을 것이고, 영혼이 없었다면 동물과 하나였을 것이다”(양금희, 1999: 232, 재인용).

에라스무스는 이러한 플라톤적인 이원론을 기독교적 관점과 서로 연결시킨다. 그리하여 그는 인간의 이 두 부분, 즉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였을 때는 서로 조화와 일치가 이루어지도록 지어졌다고 보았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과 더불어 인간 안에서는 언제나 육체와 영혼 사이에서 서로 주인이 되려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육체와 영혼 사이의 단절로 보았다. 에라스무스는 인간의 영혼은 그 자체가 선한 바탕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도야나 교육으로, 다시 말하면 발전적인 과정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는 관계로 되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에게 도야, 교육의 개념은 인간의 되어 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나. 이성적 존재

에라스무스는 인간을 육체와 영혼이라는 두 요소로 나누는 것 외에, 인간의 영적인 기능을 다시 셋으로 나누고 있다. 이성과 의지와 욕망이 그것이다(양금희, 1999: 233, 재인용). 이성은 인간의 머리에 속하는 부분으로 인간 안의 가장 고상한 부분이다.

에라스무스는 인간 안의 '이성'을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기능으로 보았다. 이성이 인간을 동물로부터 구별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동물과는 달리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이성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양금희, 1999: 234, 재인용). 그래서 이성은 에라스무스에게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통로이다. 더 나아가 에라스무스는 인간이 이성의 통로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창조되었다.

에라스무스는 이성을 실천이성의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이성은 단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능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악에 적극적으로 대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성은 인간을 궁극적으로 인간 되게 하는 지적이고, 영적이며, 실천적인 힘이 된다.

에라스무스는 인간의 이성은 바른 교육을 통해서만 이성적인 존재가 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시시대의 인간은 법도 없었고 교육도 없었으며, 들판에서 야만스러운 생활을 하며, 인간이라기보다 동물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러다가 이성이 비로서 인간을 인간 되게 하였다. 그러나 이성은 인간이 자연적인 욕망이 말하는 대로 그냥 사는 곳에는 설자리가 없다”(양금희, 1999: 236, 재인용).

에라스무스는 도야와 교육이 없이는 이성이 이성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성숙된 이성만이 인간을 인간 되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그는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것은 이성인데, 인간을 교육 없이 이성적인 존재가 될 수 없으므로, 인간은 교육 없이 참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에라스무스는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보고,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비로소 인간다운 이성적 존재로 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인간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된다.”라는 문장으로 집약된다고 할 수 있다.

#### 다. 자유의지

에라스무스는 인간의 영혼은 다시 이성과 의지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은 이성의 소유자인 동시에 이성의 판단대로 자신의 행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의 소유자로서의 인간이다. 에라스무스가 볼 때, 인간의 자유의지와 이성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선물이었다(백종신, 2002: 17, 재인용).

자유의지가 구원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라면 이성은 선악

을 판별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한편으론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신의 경지에서 악마의 경지로 타락할 수도 있었다. 이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이성의 몫이지만, 선을 행하고 추구하는 것은 자유의지의 몫이라는 점에서, 에라스무스는 자유의지를 이성보다 중시하였다(Erasmus, 1969: 48-49).

에라스무스는 “자유의지에 관하여”(De libero arbitrio, 1524)라는 책을 집필하였다. 그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음을 말한다. 한 구절을 예로 들어 인간의 자유의지를 옹호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인간을 그 자신의 뜻에 맡겨두셨다. 하나님은 계명과 훈계를 덧붙이셨다. 네가 계명을 지키고 주님께 영원히 충성할 것을 마음먹으면 그것들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하나님은 네 앞에 불과 물을 놓아 주셨으나 손을 뺀어 네 마음대로 택하여라. 사람 앞에는 생명과 죽음이 놓여 있다. 어느 쪽이든 원하는 대로 받을 것이다”(집회서 15: 14-17).

이 구절을 통해 에라스무스는 자유의지가 신의 뜻일 뿐만 아니라 구원을 선택할 능력도 인간에게 부여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신명기의 한 구절에서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너와 네 자손을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고...”(신명기 30: 15-19)를 예로 들면서, 인간은 자유의지에 의해 자기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에라스무스는 인간의 타락은 하와에 대한 아담의 지나친 사랑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신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하와의 바램을 들어주려 한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아담의 이성과 자유의지는 큰 손상을 입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이성과 자유의지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자유의지의 타락은 인간의 타락을 불러왔으므로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얻으려면 자유의지 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의 은총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Erasmus, 1969: 49).

에라스무스는 인간을 사고와 판단, 그리고 행위의 결정에 있어서 자유로

운 존재로 보았고, 이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이해하였다.

## 2. 루터

루터의 교육적인 인간이해는 구원론적 입장에서 조명된 인간이해이다. 교육이란 '인간적 책임'(Menschliche Verantwortung)으로 정의하고 있다(양금희, 1999: 313, 재인용). 교육은 인간적인 책임으로서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율법과 같은 기능을 할 뿐, 인간을 믿음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로 인도하는 복음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말한다. 이처럼 루터는 인간적인 책임으로서의 '교육'이 갖는 한계를 언제나 분명하게 하고 있다. 또한 루터는 '칭의론'을 중심으로 한 신학적 인간이해에서는 교육이 주변적인 자리로 밀려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는 인간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명제는 루터의 인간학에 대한 정의의 핵심이다(지원용, 1971: 96).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인간은 피조물이 된다는 명제야말로 그의 인간론의 근본을 이룬다. 그는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진 존재로 창조되었고, 창조시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죄 없는 존재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에게는 이성도 처음 창조시의 모습이 아니라 사단의 세력 아래로 굴복하고 만 이성이 되었다. 따라서 인간은 선과 악, 삶과 죽음 사이에서 바르게 판단할 능력을 타락 이후 상실해 버렸다.

루터는 인간의 영적인 기능인 이성이나 의지가 타락 이후 제 기능을 상실하였고, 오직 악을 행하는 것에 기여하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루터에게는 “인간 그 자체가 누구인가?”의 문제를 해명하는 것이 주

관심사가 아니었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묻고 답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 나.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지는 인간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본래적인 관계를 상실하고, 제 기능을 잃은 인간은 갈등할 수밖에 없으나, 동시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루터는 인간에게 있는 자연적인 힘인 이성을 바탕으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개선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힘인 이성을 바탕으로 철저히 거부하였다. 이성도 죄 아래 들어가서 타락하고 변질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양금희, 1999: 298-299, 재인용).

루터에게 그러한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는 길은 오로지 하나의 길이 있을 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인간은 그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그는 죄인의 상태에서 의인의 상태로 옮기워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 죄인인 인간이 믿음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칭의’의 사건은 루터에게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일어나는 사건이다.

루터는 인간은 자신이 의로워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의로움을 덧입은 것이며, 이 의는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의, 즉 예수의 의인 것이다. 따라서 이 의롭다고 칭함의 사건을 통해서 원죄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인간은 언제나 의인임과 동시에 죄인이다. 이것은 세상의 종말까지 계속된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의인’과 ‘죄인’의 양면성 속에서 매일 새롭게 죽고, 다시금 의롭게 됨으로써 끊임없이 성화예로의 길을 걸어야 하는 존재이다.

## 다. 인간의 노예의지

루터는 “노예의지론”(De Servo Arbitrio, 1525)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였다. 그는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다면, 자신의 소유나 재산을 사용하고 처분하는 권리, 즉 세상적인 일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선과 악을 판단하고, 구원과 멸망에 관련된 것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그는 ‘자유의지’는 신적인 용어이고,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적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갖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든지 사탄의 뜻에 대해서 포로이며 노예라는 것이다. 루터는 인간에게 자유의지의 유무는 신의 뜻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인간을 신과 사탄 사이에 놓인 예속적 존재라고 설명한다.

“인간의 의지는 멩에를 진 짐승과 같이 둘 사이에 위치한다. 만약 하나님이 그 위에 올라타시면...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뜻하는 바를 따를 것이다. 그러나 만약 사탄이 그 위에 올라타면 그것은 사탄이 뜻하는 바를 따르게 된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 위에 올라탈 두 존재를 선택하거나 찾아다닐 수 없다”(백종신, 2002: 24, 재인용).

루터는 선행의 기준이 은총의 개입 여부에 달려 있다고 믿었다. 그는 은총이 없는 인간 의지는 노예의지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오직 신의 은총만을 신뢰하였다(성경, 로마서 1장8절). 루터가 은총만을 절대적으로 강조한 이유는 ‘자유의지’의 존재가 교부들에 의해 명확히 입증된 적이 없고, 진정한 ‘자유의지’는 신에게만 적용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백종신, 2002: 25, 재인용).

루터는 인간의 세속적인 삶에 대해서는 자유의지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지만, 구원과 같은 영적인 삶에 대해서는 자유의지를 강하게 부인한다. 이러한 까닭에 그는 자유의지는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인간 구원에 절대적인 은총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 3. 칼빈

교육의 문제는 곧 인간의 문제이다. 교육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칼빈의 교육개념은 신학적인 인간이해에 바탕을 둔 교육개념이다. 타락에 이른 인간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으로 인도해 들이고, 더 나아가 성화의 과정에 있는 인간을 계속적으로 더 성숙하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일치에 이르도록 하는 구원교육적 의미로서의 교육이 관건이고, 따라서 이 교육의 주체는 이것이 인간을 통해 일어날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이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만 바르게 일어날 수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 교육이다. 칼빈의 인간 이해 안에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교육적인 존재라는 교육 인간학적 입장이 내포되어 있다.

### 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칼빈은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었다고 본다(유성애, 1999: 20). 그는 인간의 영혼이 육체와 구별되는 특징은 영혼불멸이고, 이 불멸로 인해서 인간은 죽은 후에도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칼빈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성경, 창세기 1장27절)로 이해하고 있다. 인간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탁월한 존재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영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반면 하나님에 의해 흠으로 창조된 피조물인 것이다. 즉,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의존적 존재라는 것이다. 이러한 특수한 위치는 인간의 창조 목적과 연관되어 있는데, 그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응답의 행위,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있다.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된 부분은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였다. 그는 “영혼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가 있다”고 하였다(양금희, 1999: 103, 재인용).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관계적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것은 인간은 그의 창조자를 향해 방향설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 나. 타락한 인간

칼빈은 인간의 타락을 다룬다.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탁월한 존재인 동시에 죄로 인해 타락한 죄인으로 설명한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는 탐욕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이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는 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죄는 아담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을 뛰어넘어 온 인류에게 그 범위가 확대되어 유전되는 것이다. 이러한 죄로 인하여 인간의 이성과 의지의 부패를 가져오게 되었다.

칼빈의 인간이해는 타락한 인간의 비참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된 인간을 말함으로 낙관적인 인간이해를 하고 있다. 칼빈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희망의 존재로 인간을 바라보았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칭의와 성화의 이중의 은혜를 지니게 된다.

칼빈은 인간의 의지에 대하여는 어거스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반대하면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으로 보았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으므로 자기 자신의 본성으로서는 선을 향하여 노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느낌을 가질 수도 없다고 하였다(유성애, 1999: 24). 만약 인간이 때때로 선을 보여준다 해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가식과 기만으로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내적으로 완악함에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인간

인간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다시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 인간은 죄의 노예를 선택함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제 인간은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

칼빈은 인간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 즉 '창조', '타락', '의인', '중생', '성화'

의 개념이다(이형기, 1984: 426). 그의 두드러지는 것은 ‘성화’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성화’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의 합일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인간이 의인으로 칭해지고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제 인간은 “그의 영에 의해서 살며, 그에 의해 통치를 받게 된다”는 말이다(양금희, 1999: 106).

<표 II-1> 에라스무스, 루터, 칼빈의 인간이해 비교

	에라스무스	루터	칼빈
인간 (차이점)	인간은 무한한 신뢰의 대상	인간은 유한하고 불완전한 대상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놓여 있는 대상
이성 (차이점)	‘이성’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기능	‘이성’은 외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힘만이 절대적인 기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이성’의 기능
자유의지 (차이점)	긍정: 자유의지	부정: 구속된 의지	부정: 노예의지
공통점	모두 다 신의 은총을 강조한 종교적 인물이며, 인간의 회복과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일치한다. 곧 신의 형상을 회복하고 신과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 Ⅲ. 교육목적

#### 1. 에라스무스

에라스무스의 교육적 사고에서는 인간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 인간의 완성과 이 완성에로의 도야가 그의 교육사상의 주관심사이다. 교육의 기능에 있어서도 교육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 즉 사회적 계층상승과 부의 생성 혹은 실용주의적안 도움과 같은 부차적인 기능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인간의 완성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가 말하는 신체교육이나 도덕교육, 언어교육, 예절교육과 음악교육 등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인간을 완성시킨다는 대명제 아래서 이루어졌다. 이 각각의 영역들은 인간 안에 내재된 잠재능력인 이성과 자유의지에 바탕을 두고 있고, 각 영역에서의 효과적인 기여로 인해서 인간의 전인적인 완성이 도모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에라스무스에게서 교육의 카테고리는 단순한 지식수업이나 교수-학습상황을 넘어서서 인간완성을 도모하기 위한 도야의 개념으로 폭넓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양금희, 1999: 266).

에라스무스의 교육목적은 첫째로 경건한 신앙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가 인문주의자이면서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하게 나타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가 그 당시 교회와 종교계의 움직임에 대하여는 신랄한 비판자였다. 교회의 스콜라 철학적 토론의 공허함이라든가, 형식주의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원시 기독교의 형태로 돌아감으로써 교회가 재건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의 인문주의적 신앙은 고전에서 강조하는 내용과 같이 이웃에 대한 사랑, 자비, 자기통제, 이성적 행동을 통한 것이므로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중간적 위치라고 보아서 틀림이 없을 것이다(선봉기, 2000: 3).

둘째로 교육목적은 인문주의적 교양이었다. 그는 고전학자로 고전연구를 강조하며, 키케로의 언어 형식을 찬양했다. 그 자신도 그런 스타일을 사용했다. 그가 중시했던 고전은 라틴어로 번역된 그리스 고전이었고, 직접 신

약성서를 번역하였고, 교부들의 글을 편집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에게 있어서 신앙은 학문이나 교양보다 중요한 것이므로 고전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목적이기보다는 수단이었다. 그 당시의 고전은 인간의 탐용이나 이기주의 위선을 제거하는 내용과 관련된 것이기에 고전을 읽고 가르치는 교육을 강조했다. 세 번째는 생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인간의 양심이었고, 인문주의의 일반적인 경향인 예의 있는 인간이었다. 도덕교육을 주창하였다.(선봉기, 2000: 4).

셋째로 그의 교육목적은 생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인간의 양심이였다. 그는 현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인간상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부분에서 예의, 학식, 복음주의적 기독교 신앙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함께 갖추어야만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건과 학식을 겸비한 인간의 형성을 인본주의교육의 목표로 제시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의 종교교육을 일반교육학과 큰 구별 없이, 넓게는 인간의 완성을 위한 도야와 교육의 개념 안에 포괄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졌다. 일반교육학의 관점에서 보면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차원의 인간의 완성과 도야의 개념을 추구하였던 위대한 교육 고전가이다(선봉기, 2000: 4). 그가 말하는 교육의 카테고리는 단순한 지식수업이나 교수-학습 상황을 넘어서서 인간의 완성을 도모하기 위한 도야의 개념으로 폭넓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체교육이나 도덕교육, 언어교육, 예절교육과 음악교육 등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인간을 완성시키고 도야시킨다는 대명제 아래서 이루어졌다.

에라스무스에 있어 교육이란 신앙에 입각한 경건한 삶과 자유교양과목의 습득을 통해 형성되어지는 인격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조화롭게 연결시키는 일을 가리켜 삶의 의무를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도야'(교육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설명한다)와 '경건성'(성서에 입각한 경건한 삶)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선봉기, 2000: 41).

그는 성서의 가르침과 교부들의 고전 등을 배움으로써 궁극적으로 새로운 사회를 특히 도덕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바로 이

같은 교육목적의 설정은 당시 남부 유럽지역에서 지향하던 개인주의적이며 심미주의적 특징을 지닌 인본주의사상과는 뚜렷이 구별되어지는 사회적이며 윤리적인 측면의 인본주의 교육관을 질게 반영하는 것이다.

그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종교교육 역시 인간의 완성을 추구하는 일반 교육의 한 부분으로 보았고, 그래서 인간 안의 잠재능력으로서의 종교성을 개발하는 것을 통하여 넓게는 인간완성에 기여하는 또 하나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인문주의적 교육개념과 종교교육 개념의 조화를 모색하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았다(강희천, 1992: 153).

## 2. 루터

중세기 및 루터시대의 교육의 맹점은 서민 계급을 위한 교육은 전혀 무방비 상태였다. 교회학교는 주로 사제직의 지원자들을 위해, 교구학교는 청년들의 교회원이 되기 위해, 공민학교는 제도시의 상인과 장인계급의 양성을 위해, 기사교육은 기사단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때 루터는 종교 개혁가로서만이 아니라, 교육 사상가요, 교육 개혁가로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루터는 중세 수도원 학교나 교회학교에서 실시되던 지적 혹은 도덕적인 측면의 교육(정정숙, 1983: 48)에서 탈피하여, 전인적인 인간을 만드는 획기적인 교육을 주장했다.

루터의 교육은 그 목적으로나 형태로나 또는 그 내용으로 볼 때 한결같이 “종교적(기독교적)”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궁극적이며, 곧 하나님과, 인간과,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했다(지원용, 1980: 35). 그러므로 루터의 교육은 곧 “기독교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지원용, 1965: 114). 그는 교육을 사회와 국가를 위한 부와 힘과 번영의 근원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한 나라의 진정한 부와 힘은 학식과 지혜와 정직성을 겸하여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많은 근면한 시민을 가지는데 있다고 생각하였다(조일구, 1987: 25). 이 목적은 시간과 장

소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며,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것이었다. 이것은 성서에서 구체화된 생활원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있는 실천이 되어야 하며, 종교교육은 또한 도덕교육을 의미했다. 즉 전자는 신의 영광과 경외이며, 인간 공동생활에서는 신과 인간의 사랑이 더불어 나타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어야 했다.

루터의 교육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하나님과 동료 인간과 국가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달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이웃에 대하여 봉사하는 생활, 즉 하나님과 영광과 인간을 위한 사랑에 적합하도록 행하는 것이다.

루터에게 있어서 교육과 신학의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의 신학을 그의 전 사상의 기초라고 한다면, 교육은 그 기반 위에 세워진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신학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다(지원용, 1982: 15). 그리스도는 루터가 본 교육의 중심이다. 그의 교육은 그리스도 중심의 교육인 것이다.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교육목적은 다음과 같다.

“교육의 첫째 목적은 충실한 기독교인을 만들기 위하여 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있었다.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만 영원한 가치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했다. 둘째 목적은 교회와 국가, 그리고 사회에 공헌할 유능한 봉사자를 양성하는데 있다. 또한 성직자와 관리를 훌륭하게 양육하는데 두었다. 셋째의 목적은 인격도야를 매우 중요한 목적으로 하였다. 인격도야 교육은 청소년기에 시켜야 하고, 청소년은 교회와 국가의 씨앗이요, 자본이라고 하였다. 넷째, 전인교육을 목적으로 하여 다양한 교양과목을 습득토록 하였다. 성서, 도덕, 체육, 음악 등 교과목을 가르쳐 골고루 성장하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였다”(김호현, 1986: 24).

정정숙은 루터의 교육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 이것을 보다 구체적



으로 설명한다면, 하나님과 동료 인간과 국가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달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여 이웃에 대하여 봉사하는 생활, 즉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을 위한 사랑에 적합하도록 행하는 것이다”(정정숙, 1992: 32).

Grimm. H. J 는 루터의 교육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1) 가장 중요한 교육목적은 학생이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이다.
- (2) 하나님과 교회와 국가와 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
- (3) 교육의 중요한 목적은 학생 개인의 성품의 발달인 것이다. 학생들의 성품의 목적을 위해서 교사나 설교자들의 수준을 강조함과 동시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문화에 대한 폭넓은 접촉이 있어야 됨을 지지했다. 루터는 성경뿐만 아니라 어학, 문학, 역사, 음악 및 과학도 알아야 될 것을 역설했다.
- (4) 교육은 학생 스스로가 지도하는 삶으로 인도해야만 된다” (김명일, 1985: 25-26, 재인용).

또한 Gerald Strauss는 루터의 교육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 “(1) 젊은이들에게는 학문적인 문제보다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핵심적인 문제이기에 교회가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하며, 다른 모든 것들도 성경을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교육하여야 하는 것이 루터 교육 사상의 핵심이다.
- (2) 교육의 주요목적은 각자의 은사에 따라 하나님께 기꺼이 봉사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는 것이다.
- (3) 사람들에게 경건과 의의 표준을 세우게 함으로써 자신만을 추구하던 방향을 돌이켜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인도하는 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라는 것이다” (김명일: 1985: 27, 재인용).

이렇게 볼 때 루터의 교육 사상은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으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율 있게 양육하고 피차 존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여 지식의 증진과 인격의 도양을 성취하려 했다. 그리고 루터에게 있어서 교육이란 한편으로는 종교교육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도덕교육을 의미한다. 도덕교육이란 자녀들을 크리스찬 신사 숙녀로 육성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종교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의 궁극적 목적인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루터의 교육 목적이며 이것이 그리스도안에서 이루어져 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된 종교교육(기독교교육) 및 도덕교육으로서 학생이 하나님과 이웃과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 3. 칼빈

칼빈의 교육은 누구보다도 간결하고 확고하다. 그렇기에 칼빈은 그 목적에 의해 교육을 추구했고, 실천했다고 볼 수 있다. 칼빈의 교육목적은 제네바 교회의 요리 문답의 초두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것은 아래와 같다.

“집례자 :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학습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집례자 :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학습자 : 그것은 그 분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우리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져야 함이 마땅한 일입니다.

집례자: 그러면 인생에 있어 최고의 선은 무엇입니까?

학습자: 위에서 대답한 것과 같은 일입니다“(John Calvin, 1958: 37).

칼빈은 위에 언급한 사실을 교육의 목적으로 여겼다. 또한 제네바 아카데미의 학장이나 교수들이 취임할 때 하는 선서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

“나는 나의 모든 능력이 감당할 수 있는 한 나는 하나님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기를 기원합니다. 학자들이 극도의 절제와 정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시의 복리증진을 위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보살필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John Calvin, 1955: 30). 이 말은 종교교육 뿐 아니라 세속적인 교육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동일한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러한 교육목적은 암스텔담 자유대학의 칼빈주의 교육가인 Jan Waterrink에 의해 명확히 표현되고 있다. 그는 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피조물 된 이웃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재능을 즐거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봉사하는 독립된 인격체로 형성하는 일이다”(Jan Waterrink, 1954: 41).

그렇기 때문에 그의 교육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것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하나님을 알면 인간을 알게 되고 인간을 바로 알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다. 칼빈은 온 인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도록 초청 받고 있으며 또한 이 지식의 결과로 참되고 완전한 행복을 누리도록 이끌림 받고 있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이 지식은 관념적 지식이 아니라 목적 지향적인 삶을 수반한 지식이다. 즉, 그것은 인간의 모든 삶의 행위를 수반한 경건의 삶인 것이다. 칼빈은 경건이 없는 경우는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였다.

칼빈에 있어서의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동반한 경의 즉 하나님과의 산 관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칼빈의 신학은 생활의 신학이라고 생활을 위한 신학이라고 보았다(한철하, 1965: 72).

그러기에 그의 교육목적은 인간을 바른 기독교인의 생활로 이끌어서 하

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삼았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육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그의 생애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도록 준비하는 기본적인 수단이었다(강용원, 1987: 32).

정웅섭은 칼빈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교육에 대한 적절한 통찰력을 제시 해주고 있다고 하였다.(정웅섭, 1957: 104). 즉 인간은 신인식을 통해서 신앙을 배울 수 있고, 인식이 있으므로 교육이 가능하고 교정도 가능함을 말하고 있으며, 칼빈에게 교육은 결코 지식이나 학문의 축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신앙자의 형성을 말한다고 보았다.

그의 교육은 인간의 이성에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심정의 활동도 요구하며, 종합적으로 교육은 지정의를 총 발휘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훈련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교육목적이 총체적이며 전인격적인 변화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고용수는 다음과 같이 그의 견해를 펼쳤다. “ 이 총괄성은 삶의 전 차원을 의미하는 세 가지 시제로 확장해서 보았을 때, 그 중요성이 더욱더 드러나게 된다. 즉 과거에는 문화유산으로 현재에는 오늘날의 필요와 요구로 그리고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소명으로 주신 직업에 대한 준비로 각각 적용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총괄성은 학생들의 영적, 지적, 육체적, 문화적, 직업적 가능성을 최대한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고용수, 1989: 242-243).

칼빈의 교육목적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성경이 교육사상의 기초이다. 인간의 교육과 생활, 삶의 유일한 목적이 성서의 가르침이다. 타락과 죄악된 인간이 올바르게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신의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때 인간의 회복된 생활, 하나님을 경배하는 생활이 되는 것이다. 자기부정의 과정에서 신의 창조질서를 바르게 알기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 넷째, 교육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인간에 관한 지식 중 모든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그의 교육목적을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인

식과 더불어 교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정의를 수반한 전인격적인 삶이며, 삶 속에서 경건을 수반한 삶이다. 이것은 더욱 더 확대되어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 시제의 삶의 전 차원으로 확대되며,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즉 학교, 가정, 직장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표Ⅲ-1> 에라스무스, 루터, 칼빈의 교육목적 비교

	에라스무스	루터	칼빈
차이점	인문주의적 교양 인간완성	하나님의 영광 국가에 대한 의무	개혁신앙의 전수와 보존
공통점	종교적이며 경건한 신앙인		

## IV. 교육내용

### 1. 에라스무스

에라스무스는 에라스무스에 있어 교육이란 신앙에 입각한 경건한 삶과 자유교양과목의 습득을 통해 형성되어지는 인격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조화롭게 연결시키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이 두 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갖추며 조화롭게 연결시키는 일을 가리켜 삶의 의무를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신앙에 입각한 경건한 삶이라는 첫 번째 요소에 관한 에라스무스의 설명은 중세교회의 교리를 넘어서는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즉 예수그리스도와 본래의 가르침이 초대 교회 때에는 단순했었으나 중세 때 이르러 교회의 교리에 의해 점차 복잡해져 감을 신약성서의 번역을 통하여 알게 된 에라스무스는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본래의 모습처럼 단순화시켜 이를 교육의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대 교부였던 오리겐이나 클레몬트의 저작으로부터도 삶의 지혜를 얻음으로써 경건한 삶을 위한 교육내용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 서서 에라스무스는 성서의 가르침과 교부들의 고전 등을 배움으로써 궁극적으로 새로운 사회를 특히 도덕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바로 이같은 교육목적의 설정은 당시 남부 유럽 지역에서 지향하던 개인주의적이며 심미주의적 특징을 지닌 인본주의사상과는 뚜렷이 구별되어지는 사회적이며 윤리적인 측면의 인본주의 교육관을 질게 반영하는 것이었다.

인문주의자였던 에라스무스는 고전의 학습을 교육의 중심 내용으로 보았다. 고전을 공부함으로 인간형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고전을 분명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학문으로 역사, 지리, 과학, 성서문학도 교육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에라스무스는 신체교육, 도덕교육, 경건교육, 언어교육, 음악교육, 문화교육 전반을 포괄하는 교육적 내용을 지침으로 제

시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이러한 교육내용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완성시키고 도야시킨다는 대 명제 아래서 이루어졌다. 이 각각의 영역들은 인간 안에 내재된 잠재능력인 이성과 자유의지에 바탕을 두고 있고, 각 영역에서의 효과적인 기여로 인해서 인간의 전인적인 완성이 도모된다고 보았다.

에라스무스의 저서들 중에서 특별히 ‘교육’이라는 테마를 앞세워서 쓴 글을 뽑아 본다면 우리는 다음 세 글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책들이 그 시대의 교육내용이었다. “어린이의 교육을 위한 수업”, “어린이들의 시민적 도덕교육에 관하여”, “학업의 원리에 관하여”이다(양금희, 1999: 249).

“On Education for Children”(어린이의 교육을 위한 수업)는 약칭 Pueris로도 불리는 에라스무스의 대표적인 교육학 저서이다(양금희, 1999: 249). 이 책을 그는 대표적인 1529년에 13살의 젊은 영주인 빌헬름 폰 클레베에게 헌정하는 글로 집필하였다. 이 글에서 그는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그의 인간이해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여기서 인간이 인간으로 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도움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과 이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중시하고 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강한 호소를 서론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어린이의 가소성과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부모와 교사의 교육적 의미, 교사, 학생관계, 그리고 교육자의 피교육자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와 자질에 대한 그의 생각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그는 학습의 방법들과 체육교육, 예절교육, 경건교육, 언어교육, 문학수업, 음악교육등을 다루고 있다.

이 글에서 그는 무엇보다 3세에서 6세 사이의 어린이들의 교육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이들에서 성경과 고대 그리스의 전통, 그리고 그가 살았던 당시의 교육이해들을 나름대로 재조직하고 종합하여 재구성하고, 그의 교육적 생각을 설명해 나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이 글은 현대에 이르기까지도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많은 교육학적 저서로 평가받고 있다.

“어린이들의 시민적 도덕교육에 관하여”는 1529년 같은 해에 역시 11세의 왕자에게 헌정한 글이다. 비록 왕자에게 헌정된 글이기는 하지만, 실제

로 그는 이 글을 일반시민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집필하였다 . 무엇보다 일반 시민의 아이들이 바르고 적당한 공동생활을 배우게 해주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다. 여기서 그는 이탈리아와 영국, 프랑스, 독일등 그가 여행한 여러 유럽나라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이들의 바른 예절 교육 목록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별히 이 글에서 그는 교육의 사회적인 측면을 강조하였고, 교육은 이상적이고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하여 가능함을 역설하였다(양금희,1999: 250).

“학업의 원리에 관하여”는 그가 파리에서 체류할 때 쓰기 시작한 글로서, 많은 부분이 그의 Pueris와 연결된다. 특별히 Pueris 가 초기 아동기의 시기를 다루고 있다면, 이 글은 성숙기의 인간의 교육, 특히 바른 학문의 방법에 관하여 그의 사고를 전개시키고 있다(양금희,1999: 250).

또한 에라스무스는 그 외 저술들을 집필하여 그 교재를 내용으로 삼고자 하였다. 그 대표적인 저술로는 “학습방법론(1512), 대화집(1518), 기독교군주 교육론(1516), 아동의 자유교육(1529)” 등이 있다. 이러한 책들을 통하여 당시의 교회, 국가, 가정, 수도원, 대학 등의 결함을 지적하고 그 건전한 개혁을 요구하였다. 인문주의자로서의 진보적이고 근대적인 성향이 잘 반영되어 있다.

에라스무스는 교부들의 고전어를 교육내용으로 삼았다. 고대문헌들을 ‘자신의 눈으로’ 읽기 위해서는 먼저 그 언어들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어와 언어에 관한 지식은 학문을 탐구하기 위하여도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에라스무스가 그리스어, 라틴어, 히브리어 등 고대 언어를 배울 것을 강조한 이유들 중의 하나이기도하다. 그러나 그에게 언어는 수단 이상의 것이다. 이보다 더욱 언어가 중요한 이유는 그가 사유를 곧 언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언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올바르게 즉 정확하게 사유할 수가 없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사유는 언어에 선행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먼저 사유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는 언어이다(양금희, 1999: 286).

에라스무스의 교육내용은 ‘언어중심교육’이다. 그 당시 인문주의의 특징



이기도하다. 인문주의의 초기에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자유교육 이상을 추구하였고, 지. 덕. 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인간적 교양을 갖춘 자유인을 길러 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념은 특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사상을 기초로 이루어졌다(박의수 외, 1993: 190). 고대의 정신과 사상을 받아들이려는 목적으로 고전어와 고전문학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강조하였던 인문주의 교육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언어 중심교육 내용”으로 변형되어 갔다. 이러한 교육 내용을 통하여 인간의 완성을 이루고자 하였다.

에라스무스는 유럽 전체의 공동문화설립을 이상으로 삼는 세계주의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그는 편협하고 폐쇄적인 학문정신에서 벗어나 외국문화에 관한 지식의 확대를 통하여 새로운 정신을 고양하며, 더 나아가 국가간의 교류를 촉진하려는 움직임을 교육을 통해 실현시키려 했다. 특히 그는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국민의 편익을 존중하는 똑같은 교육내용이 전 유럽지역에 보급되어질 경우 평화와 정의를 위한 유럽공동사회가 건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예로 전쟁이란 이권의 보호라는 차원에서만 정당화되어질 수 있으며, 법도 국민의 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인본주의사상을 전체 유럽지역에 보급시켜야 할 공통적인 교육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에라스무스는 역설하였다.

## 2. 루터

루터의 교육관에 있어서 어떤 다른 동기나 목적에 앞서 종교(기독교)가 그 첫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모든 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 종교가 선행해야 한다고 그는 보았다(정정숙, 1983: 29). 따라서 루터의 교육은 신학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며 결과적으로 성경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루터의 신학을 전 사상의 기초라고 한다면 그의 교육은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과도 같다는 것이다(김명일, 1985: 29). 또한 교육내용에 있어서 성서,

고전어, 역사, 그리고 교양과목 등을 강조하였다.

이제 루터가 말하는 교육내용을 다음의 몇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첫째로, 성경을 통한 교육이다.

루터의 주장은 “오직 성서”라는 것이었다. 이는 그의 사상의 근본원리였다. 따라서 성서는 으뜸과목이 되어야 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매일 한시간씩 독일어나 라틴어로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린이들이 자국어(독일어)로 글을 배워 성경을 읽게 하는 일이야말로 프로테스탄트 학교 교육의 기본 내용이 된 것이다(지원용, 1991: 145)

루터는 “학교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인데 그것은 교회의 교육기관이다”라고 말하였다(차영철, 1999: 27) 루터는 교육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밑에 두고, “율법”과 “복음”의 입장에서 고찰한다. 이세상의 모든 것이 “말씀”에 의하여 창조된 것 같이, 교육의 성취여부도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루터는 부모들에게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대신 그릇된 사상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에는 그의 자녀들을 보내지 말라고 서슴치 않고 권고한다. 성경을 무시한 당시의 고등학교를 “지옥의 큰문들”이라고 그는 비난하였다.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배우는 학습과정을 의미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 그러므로 학교의 수학과정표에서 성경을 무시하거나 제거한다는 것은 지식과 교육의 근본이 되는 소재를 무시하거나 과오를 범하는 것을 의미한다(지원용, 1991: 225-226).

그리하여 루터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됨을 강조하여 난해한 라틴어의 성경을 자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하여 자국민에게 민족적인 유산을 남기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성경 읽기에 대한 공헌은 문화 형성 및 종교개혁의 초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루터는 오직 성경만(sola scriptura)을 주창하였는데, 이것은 성경을 본연의 자리로 올려놓고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책으로 번역을 한 것은 모든 인간을 상대로 한 최고의 교육교재로 성경을 사용했다는 것으로 그 점이 가

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겠다(김명일, 1985: 30-31).

둘째로, 요리문답서를 통한 교육이다.

루터는 직접 요리문답서를 편찬하여 교재로 삼았다. 그는 요리문답서를 애찬(愛讀)할 책이고 “평신도의 책” 이라고 말하였다. 그의 소요리문답서는 아이들과 평민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기록된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기독교의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 이 책은 평범한 언어로 표현되어 이해하기 쉬우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깊은 신학이 내포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전 성서의 개요가 포함되어 있다(지원용, 1991: 226-227).

이렇게 루터가 요리문답서를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의 보다 깊은 이해를 통해 효과적인 교화교육을 위한 것임이 확실한 것이다. 16세기에 있어서 교육학적으로 볼 때 사상을 형성케 하는 것으로서 요리문답서보다 효과적인 것은 없었다. saxony의 교회 권위자들은 말하기를 “젊은 사람들은 축어적인 반복학습수단을 통하여 습관을 형성하지 않으면 교리를 습득할 수 없다” 고 요리문답서의 교육적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김명일, 1985: 32).

셋째로, 음악을 통한 교육이다.

루터는 성경 다음으로 음악을 교육 내용으로 강조하였다. 그는 “음악이 인간적인 정서의 안내자와 지배자로 마땅히 찬양을 받아야 할 유일한 주제일 것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음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고귀한 은사라고 보았다. 루터는.....“음악은 마귀를 물리치고 인간들을 즐겁게 만들며 분노와 불결과 거만 등 모든 것을 물리친다. 나는 신학 다음으로 음악을 손꼽았으며 최고의 존경을 돌린다. 비록 내가 가진 음악 상식이 적은 것이기는 하나 나는 세상의 무엇과도 바꾸려 하지 않는다”.(김명일, 1985: 35-36). 또 “나는 항상 음악을 좋아하였다.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좋은 특징을 말하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반드시 음악 교육을 지속하여야 한다.” 라고 말한다(지원용, 1991: 20). 루터는 자신이 음악적 상식이 적다고 스스로를 말하지만, 사실 루터 자신이 훌륭한 음악가이며 음악적 업적도 위대하며, Hende도 루터의 작곡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것이다. 루터 연구가인 D. Smith 교수는 “루터는 음악의 예술에 철저히 능통한 사람이었고 찬송가 작가로서의 명성은 개신교뿐만 아니라 로마카톨릭 학자들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졌다” 고 그를 칭찬할 정도이다(김명일, 1985: 36).

음악은 본래 거룩하고 신적인 일을 위하여 채택되었고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육적인 쾌락과 세속적인 것을 위하여 사용하는데 이르렀다. 구약성서 가운데 나오는 “예언자들”에 의하면 그들의 신학이 음악 가운데 포함되어 있으며, 음악 이상으로 사용된 어떤 다른 분량의 예술이 없었다. 음악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으며, 둘이 같이 병행하는데 이것을 시편과 구약 문학 가운데서 볼 수 있다. 이렇게 고찰해 볼 때 루터가 교육내용으로 음악을 강조한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루터는 ‘역사’과목에 관심을 보였다. 역사 연구야말로 그 당시 유행하던 교권제도에 대항할 수 있는 좋은 무기라고 보았으며,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의 위치는 매우 높다고 하였다(지원용, 1980: 197). 루터는 그 외 교양과목들의 교육을 강조하였다. 즉 문법, 수사학, 윤리학, 음악, 수학, 기하학, 그리고 천문학 등의 교육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중세 대학교육에서 실시되어 오던 것을 재삼 강조한 것이다(C. B. Gavey, 1965: 78).

### 3. 칼빈

칼빈은 ‘하나님 중심’의 우주관에 기초하여 모든 교과과정을 구성하려고 노력하였다. 칼빈에 의하면 교육에 있어서 그 중심은 학생도, 교사도 아닌 하나님이다. 그의 교육은 하나님 중심적인 교육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내용도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한다고 칼빈은 보았다. 칼빈이 서술한 ‘페다고기아 데이’(Paedagogia Dei: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교육)의 핵심적인 개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맞추어 조절하신다는 ‘아콤모다치오 데이’(Accommodatio Dei: 눈높이 교육)의 개념이다(양금희, 1999:

113). 하나님은 인간을 교육하실 때 인간의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그의 이해 능력에 따라서 그에 맞는 내용으로 교육하신다는 말이다.

첫째로 교육내용은 성경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무엇을” 이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성경의 가르침과 배움이다. 성경에 기초하지 아니하는 신앙의 내용 즉 교육내용은 존재하지 않으며, 성경에 기초할 뿐 아니라 성경 그 자체가 교육내용이 되어야 한다.

칼빈은 이렇게 말한다. “나 자신은 사실 큰 재주도 없고 언변에 뛰어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혹 하나님을 멸시하는 지극히 교활한 자들과 논쟁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그들의 시끄러운 소리를 별로 어렵지 않게 잠잠케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의에 대해서 적적히 증언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증되어야 한다(John Calvin, 1960: 4,7). 즉 하나님 중심의 교육내용은 어떤 식으로든 흔들려서는 안되며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해시킨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가르치사, 어느 한 신을 어렵듯이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참 하나님이 바로 자기임을 분명히 성경이라는 교육내용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씀 이야말로 하나님을 깨닫는데 무엇보다도 직접적이고 더 확실한 수단이다”(John Calvin, 1960: 1,6).

즉 사람들이 하늘과 땅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일이 전혀 소용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 자녀들의 학교가 된다는 뜻이다(John Calvin, 1960: 4). 이 교육내용은 반드시 성령의 내적 조명이 있어야 학생들에게 이해 가능한 것이다.

칼빈은 이렇게 말한다. “모든 이론을 다 합친 것보다도 성령의 증언이 훨씬 더 훌륭하다.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반드시 먼저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하여 확증되어야만 한다.(John Calvin, 1960: 7)

이성경이라는 교육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다. 그가 말하기를 “불신자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해주려고 하는 행위는 실로 어리석은 것이다. 믿음이 아니고서

는 성경이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John Calvin, 1960: 8,13)

성경은 우리를 더 잘 일깨우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 시켰으며, 또한 우리에게 그의 형상을 심어놓아 우리로 하여금 그 형상에 화합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또한 성경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소유주인 하나님을 좇아서 삶을 이끌어 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은 물론, 우리가 우리의 참된 근원과 처음 창조된 때의 상태에서 타락했다고 가르치며 이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그리스도가 몸소 우리에게 모범을 보였으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다. 이것을 달리 말한다면 교육의 내용과 범위는 우리의 삶 전체이며 우리의 교육목적이자 따라야 할 교육모범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다. 이것을 칼빈은 이렇게 말한다.

“주께서는 오로지 한 가지 조건, 즉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조건으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받아들이셨다(John Calvin, 1960: 6).

칼빈은 결국 교육내용의 폭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게 하며, 교육의 터전이 삶 전반에 걸쳐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데 까지 넓힌다. 그러므로 칼빈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교육목적을 중심에 두고 그것을 초점으로 하여 인간이 살고 있는 삶 전체를 개혁하려고 하였다. 칼빈에게 있어서 주 교과서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칼빈에게 있어서 성경이라는 교육내용을 학습할 학습목표는 성경언어의 이해능력 향상과 더불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 능력, 가령,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이해하고 더 이상은 묻지 않는 이성의 한계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것은 결국, 생활을 개혁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교육내용은 교리이다.

칼빈은 근본적으로 성경계시의 요약과 종합으로서의 교리를 교육내용으로 제시하였다. 교리교육은 특히 기독교 신앙의 초신자와 청소년들에게 기독교의 세례와 그리스도의 교회의 입교를 위한 준비교육으로 특정지워졌다. 신앙의 기본 교리에 대한 교육은 교회의 신앙교육을 대변하던 요리문

답 교육을 뜻한다. 칼빈의 교육에 있어서 이 “요리문답교육”은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요리문답의 영어식 표현은 “카테키즘”(catechism)이고 독일어 표현은 “카키스무스”(Katechismus)이다.(뜻: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질문과 대답형식으로 서술한 것)이러한 말의 사용은 어원적으로는 “카테케오”(κατατηχεω)란 희랍어 본 동사의 관계 속에서 사용되었는데 이 말은 본래 희랍어 “카타”(κατα)와 “에케오”(εχω)의 합성어로서 산울림(echo)라는 뜻을 갖는다. 이 말은 “다시 울린다.” 또는 “소리를 낸다”, “진동한다.” “울려 퍼진다” 혹은 “세상에 알리다”, “모방하다” 등의 뜻을 가진다. 이러한 뜻이 나오기까지의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인간을 부르신다는 것으로 복음의 소리가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향하여 인간들에게 내려 퍼져 울린다. 또는 울려 준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카테키스무스”란 말은 “전달하다” 혹은 “가르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시대적 변천을 통해 “카테키스무스”의 본 뜻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즉 세례자들을 위한 신앙의 가르침이란 관점에서 교회신앙 교육의 용어로 이해되었고, 특히 유아들의 세례실제와 관련하여 후에 유아 세례를 받는 자들이 청소년의 연령에 이르기 직전에 그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신앙의 가르침” 자체로 이해되었다(정일웅, 1984: 212-213).

칼빈에 따르면 교리교육은 히브리서 5장11절(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므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과 6장1절(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에 근거하여 두 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첫째는 신앙에 초보단계이며, 둘째는 신앙의 진보단계이다. 칼빈은 신앙이 초보단계에서 진보단계 즉 성숙단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았으며, 신앙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것은 훈계와 각성을 통한 인간의 의지 확립을 전제하는 것이었다. 칼빈의 교리교육의 목표를 그가 만든 첫 번째 신앙교육서에서 인용한 성경구절에서 발견 할 수 있다. 칼빈의 교리교육은 교회교육의 중심을 이루었으며 교회의 학습자교육과 입교자 교육, 그리고 가정 중심의 교육과

의 관계에서 교육 목회가 실행되어진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교육은 하늘의 교리를 설교하는 일이다. (정일웅, 1984: 65)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교회는 교리에서 시작되고 교리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칼빈이 강조하는 교리의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구원계시를 교리로 보았으며, 둘째, 성경과 성경내용의 총체를 뜻하며 교회를 중심한 그리스도인의 세상적 삶의 지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독교 종교의 가르침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칼빈의 주요한 저서인 “기독교강요”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확고히 설정된 교리가 종합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칼빈에게 있어서는 교리와 설교의 관계에서 교리가 상위의 개념으로 더 포괄성을 띤 개념으로 본다. 즉 칼빈에게서 이해된 교리란 설교와 가르침의 행위 그 수행과정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로 말미암아 칼빈에게 있어서 신앙적 성숙은 교리와 설교를 이해하는 것이며 성경에 기초하여 모든 가르침을 분별 할 줄 아는 능력을 가졌으며, 높은 수준의 정신적이며 영적인 윤리성과 판단능력을 활용할 줄 아는데 까지 이르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정일웅, 1984: 65).

이제 교리의 교육적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칼빈의 견해에서 본 교리는 가르쳐 질 수 있는 교수학적 기능을 가진 것이다(정일웅, 1984: 65). 교리와 인식의 관계를 살펴보면,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지혜를 가져다준다.” 는 말씀이 나온다. 여기서 인식이라는 말을 유추한 것이다. 칼빈은 신앙인에게 있어 인식되지 않는 신앙이란 없다고 말한다(정일웅, 1984: 65). 인식과 관계된 신앙의 목적은 믿음이 관련된 믿음의 구체적 내용을 뜻하는 것이다. 이 믿음의 내용, 즉 신앙의 내용은 교리 안에서 이해할 만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부연하자면, 인식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것이 교리인 것이다. 이것은 곧 교회가 각 구성원들에게 교리에 대한 지식을 주어, 교리의 인식으로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행위 즉 설교와 교리교육은 교육목회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둘째 교리란, 칼빈에게 있어서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 또는 기독교적인 삶의 올바른 스타일 형성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것은 딤후3장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유추된 것이다. 교리는 믿음과 생명 그리고 신앙과 삶의 관계 속에서 항상 가르치는 능력을 갖는다. 교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성실한 삶의 형성에 생명을 불어 넣어준다. 이것은 교리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행위적 삶 속에 진지한 마음으로의 참여와 구체적인 실천을 요구함을 뜻한다. 신앙과 행위는 언제나 선후의 관계이며 동반되는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교리는 말로만 하는 가르침이 아닌 삶의 가르침이며 삶의 현장에서 순종의 전인격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리는 교회교육의 중심이며, 근본이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지식과 인식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없기 때문이다. 교리를 인식하고 수용하도록 하는 주체는 인간의 이성의 닫혀진 눈을 열게 하는 성령의 사역을 전제한다. 여기서 교리와 삶의 일치가 가능해지는 근거가 마련되며 교육의 가능성이 전제된다(정일웅, 1984: 65).

셋째, 칼빈은 그의 설교와 성경주해서에서 학식이나 가르침(교육)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있다. 즉 배워서 얻게 된 지식이나, 그 지식의 정도로는 교육의 상태와 진전 또는 진보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있다. 칼빈의 이러한 전제는 하나님의 교육(Paedagogia dei)이란 전제에서 가르침과 그 가르침의 상태는 진보적 형상으로 나타나야 하는 관계를 밝히는 것으로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옛 언약의 범주 안에서 먼저 아브라함이나 이삭등 그 조상들을 가르치며 교육시켰던 관계에서 하나님의 교육을 받았으며, 그 교육에 따른 진보가 있었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제자들에게서 교육을 통한 진보가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칼빈은 광의적 의미로 교리교육, 좀더 협의적인 의미로는 요리문답교육을 교회교육의 중심 속에 중요한 교육적 내용으로서 그 중심을 삼고 있다.

이러한 교리교육이 칼빈의 교육내용으로서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은 기

본적인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며, 신앙의 체계를 확립해 주며, 기독교 신앙의 표준과 지침이 됨으로 인해서 성경해석을 바르게 할 수 있고, 신앙고백의 확인이 있다. 칼빈의 교육내용은 성경과 그것의 이해를 위한 요약과 해설인 교리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칼빈의 교육적 방법과 방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Ⅳ-1> 에라스무스, 루터, 칼빈의 교육 내용 비교

	에라스무스	루터	칼빈
교재	초대교부들의 저작	요리문답서	기독교 강요 예정교리
공통점	성경의 중요성을 똑같이 강조하였다. 올바른 성경의 이해를 위해 어학을 비롯한 폭넓은 학문과 접촉하도록 하였다.		

## V. 교육방법

### 1. 에라스무스

에라스무스는 자연적 성향, 가르침, 연습의 세 가지 요소 중 가르침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그는 가르침을 다른 말로 이론적 수업이나 철학으로 칭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그의 표현에서 우리는 그가 가르침을 지적인 영역의 가르침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가 가르침을 이론적 수업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지식위주의 학습이라고 이해되기보다는 실천과 대비되는 이론적 차원의 깨우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에라스무스는 교육을 단순히 지적인 영역의 가르침, 즉 지식 위주의 수업만으로 제한하여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그는 pueris에서 지식수업을 거론하기에 훨씬 앞서서 신체교육, 도덕교육, 경건교육, 언어교육, 음악교육, 문화교육 전반을 포괄하는 교육적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모든 영역에서도 그는 이론적인 가르침과 연습을 동시에 말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이론적 가르침이란 지적인 영역의 수업 보다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에 앞서 이루어질 이론적인 가르침이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양금희, 1999: 263).

여기서 에라스무스가 사용하는 "자연적 성향"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좁은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소위 재능이라고 부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성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유 및 언어 능력 및 이들을 습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하며, 또한 이에 덧붙여 그 위에 세워지는 각 개인의 자연, 혹은 자연적인 소질 성향까지를 포함하여 일컫는 것이다. 첫째가 교육자가 이 성향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는 교육은 성공할 수도 없고, 학생이 자신에게 적합한 활동으로 인도 될 수도 없다(Erasmus, 1990: 77). 두 번째 국면인 수업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하자면, 인간은 자연이 심어준 짝인 자질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가능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교

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천성적인 소질은 이론적인 지도를 필요로 한다. 이것이 바로 수업이다. 또한 인간들은 각자가 똑같은 정도와 종류의 자연적 소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아동은 다른 아동보다 더 재능이 있고, 또 어느 사람은 음악에 대하여, 또 다른 사람은 수학이나 그 외의 것에 대하여 애착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는 이를 고려하여 학생 개인 개인에게 고유한 자질을 발견하여 촉진시키고 격려하여야 하며, 모두에게 동일화한 것을 요구하지 말고 개별적 수업을 시행해야 한다. 학생이 독립적인 인간으로 되는데 돕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수업은 아동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지침을 주는 것이다(Erasmus, 1990: 82-83).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교육을 위하여 충분하지가 않다. 자연상태가 수업을 통하여 발견되고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배우는 이가 열심히 연마하지 않는다면 견고하지 못하여 지속성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연습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자연적 자질과 수업, 연습, 이 셋은 상호 연관되어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에라스무스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수업은 자연에 방향을 주고, 연습은 수업을 실행으로 이끈다.” 또한 “자연은 수업을 요구한다. 수업을 통하여 이끌어 지지 않는 연습은 길을 잃을 위험에 처한다.” 교육의 과정에서 이 순서는 바뀌어 질 수 없으며,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연관성을 인식하고 잘 결합시킬 때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Erasmus, 1990: 77).

이러한 교육이해에서 교육을 하는 사람의 역할과 과제는 이미 분명해졌다. 천성, 혹은 자질, 수업, 연습 중에서 맨 첫 번째의 것을 교사가 교육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지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자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함으로써 수업과 연습의 두 측면은 우리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과 학생의 노력에 많은 비중이 주어진다. 수업은 교사의 방법적 측면이며, 연습은 배우는 아동의 기술 혹은 과제이다(Erasmus, 1990: 84).

에라스무스는 교사의 기술이란 학생이 가진 자연으로부터 모든 것을 끄집어내어, 그의 능력에 한계에 다다르도록 계발을 돕는 사람이다. 또한 짧은 시간에 가장 적은 노력으로 되도록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학업 위하여 수업을 가장 본질적인 것에 국한시키고, 이것을 가능한 한 단순화시켜서, 가능한 한 분명히 설명하고, 수업을 놀이처럼 여겨지도록 조성하는데 있다고 한다(김명신, 1996: 295).

에라스무스는 어린이를 성인과는 질적으로 상이한 존재라고 보았고 이러한 어린이의 특수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그는 어린이를 종교적이나 도덕적인 눈으로 보려하기보다는 어린이를 어린이 자체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그의 동시대인인 루터나 칼빈, 그는 원죄와 유아세례와 같은 신학적 주제들이 어린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그들은 전반적으로 어린이의 본성을 원죄로 보아 선천적으로 악한 존재로 이해하고, 한 어린이가 세례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와 더불어 생긴 죄사함으로 인해 비교적 덜 타락한 존재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에라스무스의 어린이 이해에서는 그러한 신학적 주제들이 그다지 본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그의 어린이에 대한 이해는 실생활 속에서의 경험들을 근거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어린이를 성인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또한 계속 성장하는 존재로서 이해하였다. 그는 어린이는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성장하며, 따라서 어린이의 교육은 이 단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어린이가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 맞게 점차적으로 어린이를 끌어 올려야지, 어린이가 따라 올 수 없는 속도와 내용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이 원칙은 어린이의 신체적인 훈련이나 언어교육, 그리고 다른 지적인 차원의 학습에도 모두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하였다.

그의 어린이에 대한 입장은 특히 교사-학생의 관계에 대한 그의 입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는 pueris에서 어떻게 교육자가 어린이를 대하여야 하는지를 자세히

제시하고 있는데, 체벌과 지나친 엄격함, 그 외의 모든 비인간적인 취급을 단호히 비판하면서 온화함과 사랑함으로, 존중과 칭찬으로 할 것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 학습에서 강요와 강제가 아니라, 어린이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격려할 것을 역설하였다. 또한 그는 어린이의 놀이도 어릴 때 나타나는 단계적인 특성으로 긍정하였고, 이런 어린이적인 특성을 살려줘도 놀이와 흥미가 동반될 때 효과적임을 지적하였다(Erasmus, 1990: 97).

특히 모든 어린이는 각자 타고난 소질과 개인차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외부에서 무엇인가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이미 어릴 때 어린이는 자연적인 성향을 나타낸다....그러한 성향을 가능하면 일찍 발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이가 무엇에 적합하도록 자연으로부터 만들어졌는지를 가장 빨리 알아챘을 때 잘 교육 할 수 있기 때문이다”(양금희, 1998: 258).

이와 같은 어린이에 대한 에라스무스의 이해에서 우리는 그가 이미 그의 시대인 16세기에 즉 어린이의 특수성이 널리 인정되지 못했던 시대에 어린이가 성인과는 질적으로 다른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간파했고 어린이를 긍정적으로 인정하였으며, 종교적이나 도덕적인 이데올로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어린이를 어린이 자체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양금희, 1998: 258).

따라서 에라스무스에게서 교육의 카테고리는 단순한 지식수업이나 교수, 학습상황을 넘어서서 인간의 완성을 도모하기 위한 도야의 개념으로 폭넓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양금희, 1999: 266)

에라스무스는 경건교육을 통하여 종교성을 개발하여서 인간을 완성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어린이를 교회로 데리고 가면, 그는 무릎을 꿇는 것을 배우고,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이는 것을 배우며, 그의 모든 행동을 예배에 맞추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는 성례가 집행되는 동안 침묵하는 것을 배우고, 눈을 강대상 쪽으로 향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이러한 예절과 경건의 기초들을 어린이는 말을 배우기 전에 이미 배울 수 있다. 그렇게 배운 것은 아이가

성숙해서도 그를 계속 따랄 다니게 될 것이며, 이렇게 배운 경건이 참된 종교성을 촉진시킨다(Erasmus, 1990: 85).

이처럼 에라스무스는 외적인 태도의 습득을 통해 내적인 경건이 습득될 수 있다고 보았고, 따라서 그는 경건의 습득을 위한 행동목록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종교교육 개념에서는 우리가 루터나 칼빈의 교육구조에서 잘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참다운 기독교인이 되고, 신앙을 가지며, 깊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과 이를 위한 교육적 도움들에 대한 깊은 숙고가 그다지 운에 띄지 않는다. "어린이들의 시민적 도덕교육에 관하여"에서는 그는 종교교육에 대해 비교적 길게 언급하였는데, 이 곳에서도 그는 참된 기독교인으로 성장하는 길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교회에서 행해야 할 태도, 예를 들어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기, 교회 앞을 지날 때 취해야 할 자세, 설교를 경청하는 태도, 신앙고백 암송시의 자세, 기도와 찬송시의 태도 등과 같은 이차적이고 외적인 태도들에 대한 지침을 열거하고 있다(양금희, 1999: 266).

에라스무스의 교육구조에는 인간의 완성이 주관심사이고, 그의 한 영역으로 종교교육이 서 있다. 그는 인간을 교육을 통하여 완성시킬 수 있듯이 또한 교육을 통하여 완전한 기독교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열심히 뛰고는 있으나 길을 모르는 자가 탁월한 주자가 될 수 없고, 검을 들고 닥치는 대로 허공에 휘두르는 자가 훌륭한 검객이 될 수 없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볼 수 있으려면, 이러한 것들 어느 정도 밝혀주는 철학적 지침이 필요하다(Erasmus, 1990: 77). 이와 같이 천성적인 소질은 이론적인 지도를 필요로 한다 이것이 바로 수업방법이다.

에라스무스는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관계를 교육하는 자와 교육받는 자라는 기능적 관계에서부터 보려 하기보다는, 혈육의 정과 사랑 때문에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도 사랑을 기초로 하는 관계로 보려 하였다. 그래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일어나려면 먼저 학생이 교사에 대한 사랑의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어린이는 무엇인가를 배우기 전에 먼저 그들이 교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한다. 이것을 기초로 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어린이는 교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사가 가르치는 학문에 대한 사랑이 생겨나게 된다”(Erasmu, 1990: 89).

그래서 그는 교사나 부모가 교육적이기 위해서는 권위적인 존재보다는 어린이와 대화하고 감정이 통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부모나 교사가 어린이가 무서워하는 대상이 된다면 바른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였다.

“일차적인 과제는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니라, 피교육자의 사랑을 획득하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점차로 어린이 내부에서 강제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교육자에 대한 존경이 생겨나는데, 이것은 교사에 대한 두려움 보다 훨씬 큰 효과가 있다(Erasmus, 1990: 90).

따라서 그는 가정이나 학교는 교육의 장소로서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찬 고문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온화함과 따뜻함이 가득찬 곳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어린이는 폭군이 정치하듯 다루어져서는 안 되고, 지혜로운 왕이 다스리듯 중용과 지혜와 사랑으로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체벌에 대해서도 완강하게 거부하는 입장에서 있었다. 그는 pueris에서 상당히 많은 지면을 체벌을 비판하는 것에 할애하고 있다. 체벌을 가해야만 어린이들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하는 당시의 일반적 이해들이 잘못되었음을 강조하면서 그는 모든 개선되어 가는 과정은 어린이들의 개인차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어떤 아이는 심한 체벌 후 죽기까지 되어도 개선의 정을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오히려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과 부드러움으로 쉽게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Erasmus, 1990: 91). 에라스무스는 기본적으로 어린이를 자유인, 자유로운 영혼으로 보기를 원했다. 어린이는 교육자의 손에 부쳐진 노예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어린이는 고상한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지나친 억압이나 체벌로는 바로 교육 할 수 없다고 하였다.



16세기 당시 널리 퍼져 있는 교육적 사고에서처럼 권위주의적이거나 교사 중심의 교육패턴을 그는 표방하지 않았다. 그는 교사란 어린이를 섬세하게 관찰하고 어린이의 개성과 타고난 소질들을 예민하게 파악하여서 그에 맞게 교육해야 할 책임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면서 동시에 교사가 어린이에게 지나치게 간섭해 들어가서 자유인으로서의 어린이의 존엄성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교사는 어린이적인 특성을 무시하지 말고 이를 십분 활용하여 교육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어린이는 놀이를 하듯 학습해야 하고, 어린이에게 맞는 방법으로 교육하며 주입식이나 교사 중심의 일방적인 수업은 효과가 없는 수업이라고 하였다(양금희, 1999: 273).

## 2. 루터

루터의 교육방법을 고찰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주입식 교육방법과 암기와 암송을 강조하는 엄격한 훈육을 말하고 있다(지원용, 1965: 24). 이러한 교육방법은 현대 교육방법에서는 상당한 비판을 받는 것이겠으나, 당시 16세기의 교육환경을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하여야 한다. 루터는 학생들의 재능을 개발시키는 노력을 하였고, 적성과 장래성에 의한 상급학교 진학을 말하였으며, 훈육에 있어서도 개인의 성격이나 처지를 고려하여 지나치게 엄격하여 오히려 학습 자체를 싫어하는 반발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루터의 교육방법은 매우 혁신적이었다.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환경, 교육자의 자세 그리고 교수방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환경에 대해서 엄격한 체벌과 훈련을 배제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기쁘고 유쾌하게 학습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교사의 자세는 군주나 주인이 아닌 학생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 수준에 맞게 가르치도록 권했다(지원용, 1993: 116).

오늘날 특정과목(영어, 수학)에 교육이 집중되어 나머지 과목은 경시되는

풍토가 아쉽다, 아울러 공부가 지겹고 힘겨워 일탈하는 학생들을 볼 때 기쁘고, 유쾌하게 학습토록 도와주는 교육환경을 마련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사고였을 뿐 아니라, 이는 후일 코메니우스 교육방법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의 교육에도 많은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고 생각된다.

교수방법은 첫째, 학습목표의 확실성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습자에게 맞는 단어를 사용해야 하고 학습의 통일성과 단순성과 반복을 주장하였다. 둘째, 수업의 종결을 잘 맺기 위하여 각 단원과 목표를 총괄적으로 상세히 설명할 것과, 능력별 및 대상별로 적절히 가르칠 것을 강조하였다.

노동자, 상인, 농부 그리고 고용인들을 가르칠 때에는 절도금지의 계명을 강조하고, 아동을 가르칠 때에는 부모를 공경할 것을 강조하였다(지원용, 1993: 152). 셋째, 아동들의 지능개발을 위하여 질문을 강조하였다. 아동들로 하여금 단순히 암기하거나 반복만 시키지 말고 한 문제씩 알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원용, 1993: 153). 넷째,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교수하도록 하였다. 루터의 교육 방법은 한마디로 진보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박원필은 그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암송과 주입식 방법이 있으나 그는 교실을 매력적이어야 하며, 학습은 피교육자들에게 흥미가 있어야 하며, 교재는 학생의 능력에 맞아야 하며, 훈육은 개인의 성격이나 처지를 고려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므로 학습자에게 염증이 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교리문답에서 볼 수 있듯이 간단하고 명료한 요체화라 부르는 교수학 방법을 종교교육의 분야에서 처음으로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박원필, 1995: 6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루터의 교육방법은 당시의 권위주의적인 교수 중심의 학습법에서 학생 중심의 교수법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교육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루터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볼 수 있다.

가령, 루터의 교육방법은 ‘문법’을 배울 때, 문법만을 독립적으로 배울 것이 아니라 성서 텍스트(Text)를 읽어 가면서 그 속에서 문법적 법칙들을

배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당시 인문주의자들이 문법을 기존에 해 왔던 것처럼 여러 법칙을 나열하여 배울 것이 아니라 옛 희랍의 고전적인 텍스트를 읽으면서 배우도록 했다는 점과는 일치된다. 또한 학습이 지루하고 딱딱하지 않게, 놀이와 흥미를 통해서 동기유발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던 점도 당시의 인문주의자들과 일치하는 점이다(양금희, 1999: 147).

그러나 루터의 ‘교리문답’과 그에 대한 그의 교육적 사고는 당시의 인문주의적 사조에서 찾아볼 수 없는 루터의 독창적인 사고이다. 루터 당시의 대부분의 수업은 ‘외우기’를 통하여 수업의 내용을 머리 속에 저장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더욱이 인문주의가 인간의 ‘기억’을 훈련시키고 개발시키는 통로로서의 ‘외우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흐름에 가세하여서 ‘외우기’는 이 시기에 가히 그 전성기를 맞았던 때였다. 따라서 당시 학생들이 외워야 하는 수업의 분량도 엄청난 것이었고, 16세기 후반기에 이르러서는 이에 대한 불평과 비판이 그 절정에 이르렀다(양금희, 1999: 74).

루터는 “소교리 문답”의 서문에서 자신의 교리문답이 어떻게 가르쳐져야 할지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다. 그도 당시의 수업 형태를 받아들여, 먼저 가르치는 자가 앞에서 교리문답을 읽어 주면 학생들이 이를 하나하나 따라 읽은 후 외워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루터는 단지 외우기만 하는데서 학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루터는 학생들이 자신이 외우는 내용들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그저 입으로 줄줄 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교리문답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 이를 바르게 해석해 주고 설명해 주는 단계가 꼭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루터는 기존의 수업 방법인 ‘읽어주기’와 ‘외우기에 이어서 세 번째 단계인 ‘설명하기’의 과정을 첨가하였다(양금희, 1999: 152-153).

루터는 이 설명의 단계에서 특별히 ‘질문-대답’의 형태가 도움을 준다고 보았다. 교사와 학생의 질문과 대답 과정에서, 학생은 배우는 내용을 보다 분명히 파악할 수 있고, 교사는 학생의 이해 정도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학생의 이해 단계에 맞추어 적절하게 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루터의 질문법은 단순히 학생이 아는지 모르는지 심문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이해를 돕는 것이다. 그는 이 질문방법을 방법으로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의 교리문답을 질문과 대답의 형태로 서술하였다. 예를 들면, 그는 십계명 해설에서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계명. 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무엇인가?

대답: 우리는 하나님을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믿어야 한다“(양금희, 1999: 76).

그는 그의 모든 교리문답을 이렇게 질문과 대답의 형태로 설명해 내려가고 있다. 이 질문과 대답은 교회의 교리문답설교에서 목사가 묻고 신도들이 대답하게 되는 예배 의식적 의미를 갖게 되고, 교육학적으로 이해를 돕는 수업 방법적 의미를 갖게 된다.

루터의 모든 교육방법은 종교적 지향에 종속되어 있다. 가정과 교회와 학교를 결부시키고 있다. 그는 신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교육방법을 시도하였고 종교개혁에서 교육개혁의 위치와 부각을 앞 세웠다.

### 3. 칼빈

칼빈의 교육방법은 교육신학적 접근과 더불어 교육학적 접근에 의해 발견될 수 있다. 먼저 교육신학적 접근에 의한 칼빈의 교육방법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인도하시는 교육방법이다. 이 교육방법은 죄인을 중생시키는 성령의 역사, 성경과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의 구원사실, 성부하나님의 섭리적 은혜며, 인간의 소명과 예정에 관한 중요한 사실이다. 그래서 칼빈은 성령의 사역 없이는 또 성경과 자연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인간의 소망과 예정의 사실 없이는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황성철, 1995: 45).

교육학적 접근에 의한 교육방법은 주로, 제네바 아카데미 설립은 칼빈의 대표적인 교육방법과 그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제네바대학의 공동부(Schola Privata)는 7개 반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제일 아래 학년이 7학년이다. 각 학년의 교과과정은 7개 반으로 편성되었고 종합평가에 의한 진급이 가능하였다(박장수, 1993: 22). 이와 같은 교과과정은 라틴어, 희랍어, 문학, 논리학, 수사학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이러한 과정이 끝나면 신학부(Schola Publica)에서는 신학과 철학, 히브리어, 예술 등을 부가하여 가르쳤다.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실행되었던 방법들로서 강의, 연설이나 작문, 논문 준비, 수사논쟁 등이 있으며, 이것은 진리가 객관적이며, 이것이 이성에 의해 직접 전달될 수 있다는 칼빈의 확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칼빈의 교육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의 방법이나 다른 모든 교육 방법들은 그것 자체로서 목적이 될 수 없고, 항상 학습자의 관심을 초월하는 목적,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한 존재로서의 학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목적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고용수, 1989: 248-250). 즉 학생자체를 중심으로 한 교육방법이 실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며, 교육방법을 너무나 중시한 나머지 교육의 중심인 교사와 학생이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교회교육에 있어서의 교육방법으로는 믿음, 선행, 자기부정, 기도, 묵상, 선행 등이 있으며, 칼빈은 이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르쳤다(황성철, 1995: 45).

칼빈은 그 당시의 주입식, 단계식 교육을 그대로 실시하였다. 특히 그는 단계식 교육 방법을 많이 권장하였다. 그의 이런 주장은 “데살로니가 강해”를 한 때 그의 라틴어 교수였던 Mathurin Cordier에게 헌정 하면서 쓴 헌사에서 잘 나타난다.

“..... 그리하여 제가 선생님에게서 학습의 진정한 방법을 따라 훈련을 받은 덕분에 후일에 능숙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명성 높은 라틴 학도로 자처하는 학생들로 구성된 제1급 반을 선생님께서는 맡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다른 선생들로 말미암아 자신 있게 훈련받았다는 학생들이 허울 뿐이요 알맹이가 들어 있지 않음을 발견하시고 선생님께서는 아예 초보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시끄러운 부담에 피곤을 느끼셔서 그 해에 선생님께서는 제4급 반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것은 선생님 자신이 목적하신 바였습니다만 제게 있어서는 훈련의 첫 시작을 바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친절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부터 배운 원칙을 나 혼자서 잘 이용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이종성, 1973: 33). 칼빈의 이러한 교육 방법에 대한 강조점은 제네바 아카데미의 운영에서도 잘 나타난다.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칼빈은 학생들의 진급이 종합 성적의 평가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서 사상 처음으로 학년제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대표적인 칼빈의 교육방법은 요리문답에 의한 문답식 교육법이다. 이것을 통해 질문과 대답을 자신의 신앙내용과 신앙을 확인하는 교육작업을 하였다. 칼빈의 문답식 교육은 “제네바 교회의 요리 문답”에서 잘 나타나 있다. 제네바 아카데미의 구체적인 교육 방법에 있어서, 칼빈은 학생들에게 “실제로 시편을 노래 부를 것”과 “주기도문과 신앙고백, 십계명을 불어로 암송할 것”등을 요구하였고, 연설이나 작문을 준비해야 하고, 논문을 준비해야 하며, 자신과 논쟁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변호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배성업, 2003: 46). 여기서 우리는 진리는 객관적이기 때문에 이성에 의해 직접 전달될 수 있다는 칼빈의 확신을 볼 수 있다. 또한 학생은 이성적, 도덕적, 영적 존재로서 교육의 자료의 영향을 받고 그것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스스로 그것에 참여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관점을 알 수 있다.

칼빈은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을 아주 중시하였다. 칼빈에 의하면 교사의 인격은 아동들에게 진리를 전달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만일 교훈하는 방법이 올바르게 사용된다면 교사 자신의 인격의 자연적 표출이 곧 방법이 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사의 인격과 방법은 상호 보완적인 요소이다. 한편으로 방법은 교사의 방법인데

좋은 방법과 교사 자신의 인격의 동시적 표출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과정으로서의 방법은 학습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옳다. 그것은 경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기는 하지만 살아 있는 인격의 표현을 통해서만 역동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유성애, 1997: 44, 재인용).

칼빈의 세계관과 인생관은 그들로 하여금 특정한 방법은 받아들이고 그 외의 것은 거부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특정한 방법이나 모든 방법을 따로 따로 혹은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 칼빈은 학생들에게 진리를 전달할 수 있게 하는 모든 방법들의 가능성을 온전히 탐구하는 데 무척이나 열성적이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의 방법은 배타적인 경험론자들의 전유물만은 아니다. 칼빈은 교육과정 속에서 학습자의 역할은 스스로 맡아 활동하는 일을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활동이 육체적 활동뿐 아니라 정신적 활동까지도 포함한다는 사실과 그것이 현재의 경험을 보다 풍부하게 하려는 목적을 넘어서는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할 것이다. 사회과학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주어진 자료들을 한번 읽거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자료들이 기록된 큰 공책만을 간직하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칼빈의 견지에서 보면 활동은 그것이 만족시키고자 하는 목표와 관련될 때에만 가치를 갖는다. 그러나 교사는 학생들에게 약간의 의미 있는 경험을 갖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하고 있는 존재로서의 학생은 주요문제에 대해 알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신이 속한 집단과 전혀 무관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도 있는 것이다. 프로젝트의 방법이나 다른 모든 방법들은 그것 자체로써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학습자의 순간적인 관심을 초월하는 목적과 연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특히 이 점에서 칼빈은 현대의 여타 다른 이론들과 뚜렷이 구분되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Robert S. Rusk, 1962: 286-287).

강의하는 방법의 목적과 실천은 최근에 들어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은 이러한 까닭이 방법 그 자체에 원래부터 잘못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만일 강의가 재미없고 열의가 없으며 학생들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호응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을 조금도 기울이지 않았다면 그 수업은 의심할 여지없이 따분하고 주목하기조차 싫은 것이 되어 학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똑같은 비판이 유능하지 못한 교사에 의해 활용되어지는 다른 모든 방법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 반면에 만일 강의자가 준비를 잘하고 그가 가진 자료에 열의가 있다면, 그리고 만일 그가 그의 강의를 때에 맞는 실례를 통해 예증하고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학생들의 마음을 자극한다면 전혀 상반되는 결과가 기대될 수 있다.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나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척도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일어난다. 이 의문에 대해 칼빈은 “어떤 방법의 선택은 한편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가장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방법은 철학 뿐 아니라 심리학과도 관계된 것이다. 그러므로 네덜란드의 칼빈주의 교육가인 Van der Kooy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반적인 방법 뿐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 세분된 특수한 방법은 심리학적 기반 특히 아동심리학적 기반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성서가 자녀들로 하여금 그가 가야할 길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하라”라고 말할 때 성서 그 자체는 이 방향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아동의 ‘길’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만 한다“(T. Van Der Kooy, 1925: 55)라고 말했다.

이 말은 칼빈주의 교육가들이 그것이 어디로부터 수집되었던 간에 입수된 모든 정보를 통해 아동의 ‘길’이나 본성을 이해하는 일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물론 세속적인 문화의 통찰력이나 발견들이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기독교의 규범이 되는 성서의 빛에 따라 평가받



고 재해석되고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칼빈의 교육 방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는 한 방법이 교육의 목적이 지향하는 바를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간의 행동 법칙들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칼빈에게 있어서는 교육의 방법도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하고 성경의 조명 아래 평가받고 재해석되고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표 V-1> 에라스무스, 루터, 칼빈의 교육방법 비교

	에라스무스	루터	칼빈
차이점	실천적 가르침의 교육 단계적 교육	주입식 교육 암기와 암송의 교육 종교적 지향 교육	하나님 중심의 교육 독트리나 수업 교육 교과과정 7개 교육 학년제에 의한 교육
공통점	학생의 수준에 맞는 수업 권위주의적인 교사중심에서 학생중심으로의 수업방법		

## VI. 교육 실천

### 1. 일반교육에서의 실천

#### 가. 에라스무스

에라스무스는 일반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차원의 인간의 완성과 도야의 개념을 추구하였던 위대한 교육 고전가이다. 그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종교교육 역시 인간의 완성을 추구하는 일반교육의 한 부분으로 보았고, 인간의 완성을 추구하는 일반교육의 한 부분으로 보았고, 그래서 인간 안의 잠재능력으로서의 ‘종교성’ 계발을 인간의 완성을 추구하는 일반교육의 한 영역으로 보았다. 이것은 일반교육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교육 영역의 확대를 의미한다. 인간의 한 잠재능력으로서 종교성을 계발하는 것을 통하여 넓게는 인간완성에 기여하는 또 하나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인문주의적 교육개념과 종교교육 개념의 조화를 모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에라스무스의 일반교육에서의 교육실천은 인문주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인문주의는 유럽 각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개인적 인문주의 교육은, 주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목적은 마음과 몸, 도덕을 포함한 인간성의 조화로운 발달이라는 고대 그리스의 자유 교육의 부활이었다(한명희, 1997: 128). 정신적이나 물적인 풍부의 삶을 살고자 하여서, 예술, 문학, 음악, 자연을 통해서 인간을 표현코자 하였다. 그 교육내용으로는 인문교육과 심미적 교육에 주를 두었고, 더하여 체육에 대한 강조도 들 수 있다.

사회적 인문주의 교육은 북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이들에게는 개인적 자유와 행복보다는 객관적이며 도덕적인 행동이 더 관심이 대상이었다. 개인의 자아실현은 사회적 자아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었다. 다분히 이

들의 교육목적은 개혁적인 데 있었다. 교육내용도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중시하여서, 고전인문교육도 종교적, 사회적 교육의 수단으로서 강조되었다(한명희, 1997: 133). 이와 같이 인문주의 교육은 중세교육이 소홀히 했던 인간에 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고 할 수 있고, 단지 신앙인의 양성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인간 완성을 위한 교육을 추구하였다 할 수 있다.

에라스무스는 인문주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고, 그는 개인적 인문주의 보다는 사회적 인문주의의 대표자로 꼽히고 있다. 그의 교육목적은 학문이나 지적인 것보다는 신앙을 강조했고, 예절의 세련됨보다는 도덕적 의무를 중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에라스무스의 교육사상은 인문주의의 성격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는 인문주의 교육과 종교개혁기의 교육의 전환점에서, 끝까지 인문주의를 고수코자한, 인문주의 교육의 완성자이자, 오늘날 현대교육에 끼친 인문주의 교육의 영향을 주고 있는 교육사상가라 할 수 있다.

## 나. 루터

첫째로 루터의 일반교육에서의 교육실천은 가정이다.

루터는 가정교육을 모든 교육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사회와 국가의 복지를 이룩하고 또한 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정이 얼마나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루터 자신은 명백히 알고 있었다. 기본적인 교육기관으로서의 가정의 중요성에 관한 루터의 견해와 가정교육에 대한 그의 각별한 강조는 교육학에 남겨준 불멸의 공헌이라고 보겠다. 적절한 가정교육과 건전한 가정생활은 훌륭한 나라를 건설하고 사회 복지를 이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Elmer Harrison Wilds, 1942: 294).

루터는 부모의 지위에 최고의 찬사를 돌린다. 그는 인간이 학교나 다른 어떤 곳에서도, 훌륭한 어머니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육적인 교훈을 얻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지원용, 1977: 189).

둘째로 루터의 일반교육에서의 실천은 학교이다.

루터는 근대적 의미의 학교설립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의무교육을 주장했고 정부 후원의 공교육의 실시를 요구하였기 때문이다(김득룡, 1980 :33)

루터는 “기독교 학교를 후원하고 유지할 것을 전 독일 시민들과 시의원들에게 호소한 논문 An die buergermeister and Ratsherrenaller Staedte Deutschlands, dasz Sie schuleu einrichten and erhalten” 에서 부모들이 자녀교육을 무시하는 원인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경건성과 정직성의 결함 : 자녀들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과 그들을 위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이다. 둘째,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를 교육시킬만한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셋째, 부모들은 자녀들을 교육시킬만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였다. 넷째,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사를 채용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지나친 부담이었다. 많은 수재 아동들의 교육이 가난 때문에 등한히 여김을 받았다” (정정숙, 1980: 122-123).

따라서 루터는 학교의 도움이 없는 가정교육의 한계성을 말하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기관인 학교의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학교의 설립 및 유지를 위해 정부와 책임자들이 힘쓸 사명이 있음을 거듭 주장했던 것이다.

루터는 국가가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는 유능한 봉사자를 양육하여 국가와 교회에 제공하는 협력관계를 말했다(지원용, 1977: 221).

학교는 국가의 지원으로 국가의 봉사자로서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어떤 교육실천을 하여야 학교설립의 목적과 부합되는가 하는 문제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셋째로 루터의 일반교육에서의 실천은 윤리교육이다.

Gustaf wingren에 의하면 루터의 윤리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또한 율법도 아니고 이웃(the neighbor)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他者를 고려하는 삶이 윤리적 삶이라는 것이다. 루터는 윤리적 덕의 발전이 있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아의지를 부수는 일과, 자아보다는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였다(Harold J. Grimm, 1960: 83).

넷째로 루터의 일반교육에서의 실천은 직업을 위한 준비교육이다 .

루터에 의해서 크게 변화되어진 것은 노동에 대한 가치관이다. 흔히 노동은 죄의 결과라는 징벌의 관념에서 노동은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수단이므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한다(Karl Holl, 1962: 33).고 하였으며 노동의 개념을 소명의 개념으로 바꾼 것이 루터의 큰 공로라고 할 수 있다.

루터가 사람들로 하여금 소명의 개념인 노동관을 갖도록 하여, 당시 성직자가 되는 학교에 보내던 계층이 삶의 실제적 수단과 기능에 관심을 둔 것은 성경적 노동관을 근거하여 노동 자체를 신성(神性)한 것으로 생각한 사람들의 호응을 얻은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이와 같이 노동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유능하고 충실한 봉사자를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함으로서 교육일반에 획기적인 사건을 만들었다. 그것은 성직자나 교회권이 아니면 일반인들은 감히 성경을 직접 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경번역을 통하여 모든 사람의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어렸을 적부터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성서연구를 위한 준비단계로서 언어 연구를 장려하였다.

#### 다. 칼빈

칼빈은 비록 평생을 교육자로서의 실천적 삶을 살아왔지만 미국의 교육학자 John Dewey나 H. Horn 등과 같이 교육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교육학자나 교육사상가는 아니었다. 칼빈은 오히려 자신의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교육을 실천한 교육 실천가였다. 칼빈은 교육사상을 체계화하여 정립한 교육학자 또는 교육 개혁가라기보다는 교육실천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이것을 실천하는데 노력한 신학자였으며, 그는 대중교육의 선구자로서 일반학교 교육의 새로운 영역을 개발하였다(Philip schaff, 1969: 354).

첫째로 칼빈은 일반교육에서의 교육실천은 학교를 통한 교육활동이다.

칼빈의 교육활동 가운데 가장 특이한 것은 학교설립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대중교육을 위한 새로운 형태를 개발한 것으로 교육사적 의의가 크다.

학교설립에 관한 칼빈의 관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공립학교를 위한 문서로 칼빈은 공립학교 설립을 위한 문서를 발표하였다. 1538년 1월 12일에 Cordier)와 Saunier와 같이 “제네바 학교를 위한 시안”(Plan for the Schools of Geneva)을 발표하였다. 이 문서에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배움의 토대가 되며, 인문학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둘째, 제네바의 학교는 성직자 교육만이 아니라 시민교육에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성경과 인문교육 그리고 시민교육을 강조하였다. 칼빈은 공립학교를 통한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특히 인문교육에 대하여 논의하였다(정정숙, 1980: 212-213).

둘째로 칼빈은 일반교육에서의 교육실천은 제네바 아카데미 설립이다.

칼빈의 교육활동 가운데 제네바 아카데미(The Academy of Geneva)의 설립은 획기적이다. 이 곳을 통해서 당시 유럽의 칼빈주의 고등교육의 센터로서 수많은 지도자를 배출하였다(Monter, E. William, 1967:113).스트라스버그에서 제네바로 귀환한 칼빈은 교육에 대한 이상과 열망을 가지게 되었다. Coetzee는 칼빈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운 목적을 “신정국가를 세우려는 칼빈에게 있어서 면류관과도 같은 성취였다”고 하였다. 1559년 6월 5일에 설립된 제네바 아카데미는 예과(Schola Privata)와 본과(Schola Publica)로 구성되었는데, 예과는 4년 과정이고, 이 과정을 마친 후 3년 과정의 본과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였다.

칼빈이 세상을 떠난 1564년에는 세계 각지에서 학생들이 모여들어 예과

에 1,200명, 본과에 30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였다. 이 학교의 예과는 7개 반으로 구성되었고, 진급은 종합평가로 하여 교육사에 새로운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제네바 아카데미는 유럽각지의 학생들이 공부하였고, 개혁신앙을 각지에 전파하는 역할과 지도자 양성의 온상이 되었다. 제네바 아카데미의 교육과정을 보면, 주로 라틴어, 희랍어, 문학, 논리학, 수사학 등을 예과에서 교육하였고, 본과에서는 철학, 히브리어, 예술 등을 첨가하였다. 이 교육에서 칼빈은 인문교육을 강조한 것이 특색이며, 또한 처음부터 국제성을 띠는 것이 특색이다.

제네바 아카데미는 목적 지향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동시대의 관행을 깨는 혁신적인 인사조치를 통하여 경건하고 유능한 교수들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 2. 기독교교육에서의 실천

### 가. 에라스무스

에라스무스는 교육에 대한 사고는 루터나 칼빈의 교육적 사고에서처럼 종교적 사고가 그 핵심 주제가 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그의 교육적 사고에서 안에서는 고대의 교육이상과 기독교적인 교육이상이 서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의 사고 안에는 고전적인 교육이상이 주축을 이루면서 이에 기독교적으로 교육시키는 기독교의 개념이 첨가되고 있다.

첫째로, 에라스무스의 종교교육에서의 교육실천은 신학과 인문주의의 접목이다. 그는 신학과 일반학문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지점을 모색하였고, 그 점을 성경에서 찾았다.

둘째로, 에라스무스의 종교교육에서의 교육실천은 인간과 교육의 이해에 종교개념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있다. 그는 종교교육은 ‘경건교

육'이라는 단어로 주로 표현하였다(양금희, 1999: 277). 그는 경건교육을 통하여 종교성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과 같이 경건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어린이를 교회에 데리고 가면, 그는 무릎을 꿇는 것을 배우고,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이는 것을 배우며, 그의 모든 행동을 예배에 맞추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의 성례가 집행되는 동안 침묵하는 것을 배우고, 눈을 강대상 쪽으로 향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이러한 예절과 경건의 기초들을 어린이는 말을 배우기 전에 이미 배울 수 있다. 이러한 경건의 기초들을 어린이는 말을 배우기 전에 이미 배울 수 있다. 그렇게 배운 것은 아이가 성숙해서도 그를 계속 따라다니게 될 것이며, 이렇게 배운 경건이 참된 종교성을 촉진시킨다”(양금희, 1999: 265-266).

셋째로, 종교교육을 인간의 잠재능력으로서의 종교성 개발이라는 측면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 나. 루터

첫째로, 루터의 종교교육에서의 교육실천은 가정이다.

가정교육의 암흑이기도한 중세시대에 종교 개혁으로 가정의 위치가 상승하였고 특히 루터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한 강조로 인해 가정은 교육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로 대두되었다(D. Campell Wyckoff, 1961: 32). 루터는 가정교육을 모든 교육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가정-학교-교회”의 협동은 교육의 본질적인 것이다(Elmer Harrison Wilds, 1942:294).

루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젊은이들을 육성하고 교육하는 책임을 주로 가정에 맡겼다. 가정 안에서 자녀 교육의 과제를 준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중대한 의무를 시행하는 일이 된다. 자녀들을 위한 가정교육은 부모들의 책임이며, 학교나 교사를 이용하는 것은 다만 보충적인 일에 불과하다. 가정은 어떤 의미로 보아 교회라고도 할 수 있다. 통치자,



목사, 설교자, 재판관, 교장 등과 같은 존경할만한 호칭들은 부모들에게도 붙일 수 있는 것들이다(안순옥, 1980: 29).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지위를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신분이나 더 존중하시며, 인간을 향하여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존경하라고 명령하셨다.(에베소서 6장 1-2절) 가정 안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하여 가정목사와 주 인격으로 그들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다.

루터는 “가정교육은 빠를수록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루터는 가정교육에 있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간섭이나, 교육의 방종을 초래하는 부모의 지나친 사랑을 우려한다. 자녀교육에 있어서는 엄격함과 부드러움이 균형 있게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부모는 어린이가 되라”고 말한다. 이는 그리스도가 사람을 교육시키기 위해 인간이 되신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모든 교육방법에 있어서 루터의 생각의 중심은 부모와 자녀간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올바른 교육방법은 제 4계명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태도를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곧 인격적인 태도에 의하여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게 해야 한다.

둘째로, 루터의 종교교육에서의 실천은 교회이다.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신앙을 가져야 하며 신앙적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회는 인간의 신앙을 교육하는 기관이다. 루터가 주장한 교회의 임무를 살펴보면 교회가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필요한 신앙교육의 가장 적절한 기관임을 알 수 있다.

루터는 주장한 몇 가지 교회의 임무를 살펴봄으로써 교회에서의 교육실천 방안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일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인간 구원의 사역이므로 교회는 이 문제를 가장 중히 여기고 교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도록 교육을 실천하여야 한다. 그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며 직접 모범을 보이신 것이기도 하다. 둘째, 교인들이 주어진 임무를 완수함이, 즉 사랑의 봉사임을 루터는 설교와 논문집을 통해

서 많이 강조하였다. 셋째, 교인들 사이에 진실된 형제애를 나누도록 해야 된다. 루터는 참된 형제애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서의 교회(그리스도인의 모임) 밖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하여 사랑의 교육실천이 교회의 영역임을 분명히 했다. 넷째, 교회는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사명적인 교인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교인들로 하여금 세상을 떠나 별세계(別世界)로 가거나 은거하는 삶이 아니라 세계의 현실 속에 들어가 살면서 최선을 다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교회에서 교육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지원용, 1975: 122-228).

그런데 교회의 성공적인 교육실천을 위해서는 특별히 성직자들이 많은 연구와 올바른 성경이해로 교인들을 교육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루터는 참된 교회는 말씀에 달려있다 “고 하였다(지원용역, 1977: 245). 그러므로 인간의 영적인 교육은 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본질상 영적인 교회가 교육의 장이며, 교회의 사명적 임무인 영혼구원, 주어진 신앙적 봉사임무, 진실된 사랑 및 사회에 대한 사명 실천의 근원으로서 교회의 임무를 잘 실천할 때 교육적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그런 교육적 실천의 성공을 위해서는 말씀의 바른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다(김명일, 1985: 52-53).

## 다. 칼빈

칼빈은 교육의 효과와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출석, 근면, 순종의 세 가지 중요한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칼빈의 모든 활동은 교육과 직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목회, 저술 그리고 학교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한다.

첫째로, 칼빈의 종교교육에서의 실천은 목회를 통한 교육활동이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개혁활동을 전개하면서, 제네바 시민들에게 개혁의 원리를 주입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칼빈은 제네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위치에서 교회의 질서확립을 위한 각종 문서들을 작성하였다. 이 문서들은 칼빈의 목회활동의 일환이다. 설교와 강해에 주력하는

한편 교회의 질서확립과 유지를 위하여 각종 문서들을 작성하여 효과적인 개혁운동을 전개하였다(정정숙, 1983: 206).

교회를 통한 각종 문서들은 신앙교육과 아울러 시민교육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문서들의 특성을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교회의 조직과 예배에 관한 조례이다. 이 문서는 칼빈의 초기문서 가운데 하나이다. 칼빈이 무질서한 제네바의 개혁운동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질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김남식, 1992: 116-117). 이러한 필요에 의하여 그가 초안한 것이 “교회의 조직과 예배에 관한 조례”(Article Concerning the organization of the church and worship)였다. 이 조례는 1537년 1월 16일에 시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조례에서 취급하고 있는 주제는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권징을 통한 훈련 둘째, 시편의 찬송 셋째, 어린이들의 교육문제 넷째, 결혼에 관한 문제이다. 이 문서는 칼빈의 개혁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나님 중심사상이 강하게 제시되어 있다. 특히 성찬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성례가 바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권징을 통한 신자의 훈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바른 생활은 교육을 통해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칼빈은 이 문서에서 자녀교육의 중요성과 요리문답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정정숙, 1980: 122-123).

그리고 하나는 교회 헌법이다. 칼빈은 제네바에서의 개혁운동은 전후 두 차례에 걸쳐 전개되었다. 제네바에서 추방당한 후 스트라스버그에 머문 시기는 그에게 매우 유익한 시기였다. 칼빈은 스트라스버그에서 다시 제네바로 돌아와서 “교회 헌법”(Ecclesiastical ordinances)를 작성하였고, 1541년 11월 20일에 법제화하였다.

이 문서가 강조하고 있는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의 직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바로 다스리기 위하여 네 가지 직분이 있는데 목사(pasteurs), 교사(docteurs), 장로(anciens), 집사(diacres)가 있다(정정숙, 1980: 122-123). 여기서의 특성은 ‘교사’를 교회의 직분에 포함한 일이다. 여기서 교사의 직분이란 학교의 직

분을 의미한다.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로서의 자질과 함께 목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교회법에 순종하여야 한다. 둘째, 학교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래를 위하여 후손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며, 교회가 자녀들을 위하여 학교를 건립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칼빈은 성직자의 양성과 함께 신실한 시민을 양성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정정숙, 1980:122-123). 셋째, 자녀들에게 요리문답(要理問答)을 교육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모든 시민들과 거주자들이 그들의 자녀를 주일 정오에 교회로 데리고 와서 엄숙하게 교육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정정숙, 1980: 122-123).

그리고 신앙고백서이다. 칼빈이 작성한 “신앙고백서”(Confession of Faith)는 1536년 11월 10일에 작성되었는데 모두 21 개조로 되어 있다. 이 문서는 개혁운동을 시작하면서 무질서한 것을 바로잡고, 로마 교회의 신앙적 오류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시민들에게 공개적 신앙고백의 의무를 지우기 위하여 작성되었다(정정숙, 1980: 210). 신앙고백서를 통하여 신앙적 통일을 이루고 나아가서 정치적 통일과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또한 어린이들도 교회의 동등한 회원으로서 교육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칼빈은 신앙고백을 통하여 교회의 근거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선포하며, 생활의 순결을 유지하는 일에 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교육적 의도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둘째로, 칼빈의 종교교육에서의 실천은 저작을 통한 교육활동이다.

칼빈의 저작활동은 매우 심오하고 광범위하다. 그의 저작들은 문학적 가치에서도 귀중하며, 그 방대한 양에서 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기독교 강요이다. 칼빈의 대표작이며, 그의 사상을 집대성한 “기독교 강요”(The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은 기독교 역사상 최대의 걸작 가운데 하나이다. 1536년에 초판이 나왔을 때에는 모두 6장으로 된 소책자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계속하여 증보하여 수정하였고, 성경의 진리를 변증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하였다(정정숙, 1980: 210-211).

그리고, 요리문답(프랑스어판은 1541년, 라틴어판은 1545년 발간)이다. 제네바에서 추방되어 스트라스버그에 머물다가 다시 제네바로 돌아 온 칼빈은 “제네바 교회의 요리문답” (Catechism of Church of Geneva)를 발간하였다. 이 요리문답은 과거의 “신앙지도서”와는 달리 목사가 묻고 어린이가 대답하는 문답식으로 되어 있다. 어린이들에게 맞도록 만들려고 노력한 책이다(William Boyd, 1947: 198).

373개의 질문과 대답으로 되어 있는 이 문답서는 1 부에서 믿음, 2 부에서 율법, 3 부에서 기도, 4 부에서 성례를 다루고 있다. 칼빈은 목사와 어린이가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에 유의하였는데, 이것은 교육에 대한 칼빈의 큰 공헌 가운데 하나이다. 이 요리문답은 교회교육의 내용뿐만 아니라 형태에서도 새로운 방향을 가르친다.

셋째로 칼빈의 종교교육에서의 실천은 교회를 위한 각종 문서를 통해서 교육활동이다. 이미 앞서서도 다룬 바와 같이 칼빈은 신앙질서를 위하여 각종 문서를 간행하였다. “교회의 조직과 예배에 관한 조례”를 간행하였고, 이것을 근거로 하여 “신앙지도서” (Instruction in Faith)를 간행하였다. 모두 33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논문식으로, 그 내용은 부모들이 이 책을 기초로 자녀들을 가르치도록 만들어졌다. 부모가 이 책을 소화한 후에 자녀들에게 보다 쉽게 설명하도록 만들었다. 이 책 외에도 교회를 위한 칼빈의 문서들은 언약적인 관계에서의 자녀교육과 부모의 책임을 위한 항목들이 많다. 교회의 질서와 신앙질서를 통해서 성경과 생활의 훈련을 강조하고 있다.

<표 VI-1> 에라스무스, 루터, 칼빈의 교육실천 비교

	에라스무스	루터	칼빈
일반 교육 (차이점)	저술을 통한 인문주의적 교육 공동문화설립을 통한 교육	가정, 학교를 통한 교육 윤리교육과 직업을 위한 교육	학교설립과 저술을 통한 교육
기독교 교육 (차이점)	경건교육	가정과 교회를 통한 교육	목회를 통한 교육 각종 문서를 통한 교육
공통점	일반교육과 기독교교육을 구분하는 것보다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통합과 접목을 시도하였다.		

## VII. 논의

에라스무스, 루터, 칼빈의 교육사상과 실천이 개혁시대의 교육에 주는 영향은 모든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사상을 기초로 하는 학교제도의 설립이었다. 이와 같은 국가에 의한 공교육제도의 발전과 완성은 국가의 복지가 개개 국민의 교육에 의존한다는 정치적 사상의 발달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제도 일체의 기초는 각자의 이성에 의하여 성서의 계시를 이행하는 일에 개인의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종교개혁 정신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성서를 읽는 능력, 가능하면 원전으로 읽는 능력의 훈련이 학교의 새로운 임무가 되었다. 따라서 모든 계급의 남녀 어린이들에게 보편적이며 의무적인 교육이 요구되었다. 또한 교회와 국가, 사회에 필요한 인재의 양성을 위해 대학교육에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종교개혁 이후 교육에 미친 영향으로 의도적 교육(formal education)과 비의도적 교육(informal educ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 비의도적 교육은 사회교육에 공헌한 것이며, 의도적 교육은 학교현장에 공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세 사람의 교육이 주는 시사점을 일반교육과 기독교교육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 1. 일반교육에 주는 시사점

#### 가. 에라스무스

에라스무스는 그는 무엇보다 인문주의자였다. 그는 당대 유럽 최고의 인문주의 교육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그 운동의 완성을 가져온 사람이었다. 그는 인문주의가 추구하였던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자유로운 이

상들을 섭렵하였고, 이로 인해 그의 사고 안에는 인간이 그 중심에 서며, 자유로운 인간,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간에 대한 믿음이 그의 사고 전반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의 사상 전반에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은 그의 교육적 사고에서도 나타난다. 그의 교육적 사고에도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 완전을 향하여 성장해 나아가는 인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가득 차 있다. 그의 인간에 대한 긍정적 입장은 곧 인간의 완성에 대한 낙관적 태도로 나타난다. 그는 인간이 이성적 동물이지만, 이 이성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완전한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배아와 같이 인간 내부에 주어져서 바르게 교육되고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인간은 완성의 가능성을 내적으로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른 교육이 따른다면 완전한 존재로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교육학적 기본 입장이다. 따라서 그에게 인간이 인간으로 되는 과정, 즉 이성적인 인간으로 되는 과정에서 교육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그에게 인간은 교육 가능한 존재이고, 또한 교육 필연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그의 인간학은 곧 교육인간학이 된다.

이러한 입장은 사실 16세기 인문주의자들의 교육사상 안에 전반적으로 나타났던 입장이다. 에라스무스는 그러한 그의 선임자들의 입장을 전적으로 대표하면서, 그들보다 더 강하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어린이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서 있었다. 따라서 에라스무스는 인문주의적 교육사상을 완성한 장본인이라고 평가되며, 더 나아가 16세기에 이미 18세기의 계몽주의적 교육사상을 앞당겨 사고한 선구자와 같은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에라스무스는 일반교육학의 관점에서 보면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차원의 인간의 완성과 도야의 개념을 추구하였던 위대한 교육 고전가이다. 그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종교교육 역시 인간의 완성을 추구하는 일반교육의 한 부분으로 보았고, 그래서 인간 안의 잠재능력으로서 종교성을 계발하는 것을 통하여 넓게는 인간완성에 기여하는 또 하나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인문주의적 교육개념과 종교교육 개념의 조



화를 모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에라스무스는 교육의 최우선적 의무를 가진 자를 누구보다도 부모로 보았다. 자연법으로 보나, 본능적인 사랑에 근거하여 보나, 하나님의 명령 차원에서 보나, 국가가 부여하는 의무의 측면에서 보나 자녀에 대한 일차적인 의무를 갖는 일차적인 인물이라는 것이다.

에라스무스는 체벌에 관해서도 완강하게 거부하는 입장에서 서 있다. 체벌을 가해야만 어린이들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하는 당시의 일반적인 이해들이 잘못되었음을 강조하면서 그는 모든 개선되어 가는 과정은 어린이들이 개인차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16세기 당시 널리 퍼져 있는 교육적 사고에서 처럼 권위주의적이거나 교사 중심의 교육패턴을 그는 표방하지 않았다. 그는 교사란 어린이를 섬세히 관찰하고 어린이의 개성과 타고난 소질들을 예민하게 파악하여서 그에 맞게 교육해야 할 책임을 가진 존재로 생각하였다. 이와 같이 교육자-피교육자의 관계는 가히 현대적이라 할만큼 개방적이라 할 수 있다.

## 나. 루터

첫째로 루터의 교육이 직접교육에 영향을 준 것은 초등교육이고 김나지움은 신교정신에 의해 설치되어 후일 대학교육의 예비과정이라는 기초를 마련했다. 이것은 대중교육과 귀족교육이 동시에 발전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둘째로 우주 내지 세계주의에 반하여 교육권을 군주에 의해 통일하게 하고 이것을 공동사업으로 한 결과 국민교육 내지 교육의 국가적 경영의 기초를 형성하게 되었다. 사실에 있어서 독일의 국민교육은 이 시대에 있어서 그 기초를 획득하고 17세기에 들어가 이것을 실현하게 되었다.

셋째로 루터는 과거 교사로 남자만이 독점하던 것을 초등학교 교사로 여자도 채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여교사 출현을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교직의 중요성을 역설하여 교육자에게 좋은 영향을 미

쳤다.

넷째로 루터는 가정교육을 중요시 할 것을 고려하고 국가발전의 기초는 가정교육에 있으며 또 자제교육은 인간의 본분 중 가장 중대한 것이라고 강조한 결과 가정교육을 개량하는데 유익한 영향을 끼쳤다.

다섯째로 루터는 근대교육자들 중에서 보통교육과 의무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최초의 사람이었는데, 그것은 종교교육의 기본적인 원칙들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필수불가결해 졌다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교회와 국가가 모든 훈련된 인원들을 필요로 했다는 이유에서이다. 루터가 철저한 교육개혁을 요구한 주요한 사실은 하나님에 관한 신앙의 점진적 교육이었다. 그의 신앙과 성서의 바탕에서 의인은 그의 모든 교육개혁 속에 명백하게 주장하고 있다.

## 다. 칼빈

칼빈은 시대적 요구인 대중교육, 르네상스 휴머니즘에서 유래한 고전, 수사학, 역사에 대한 높은 평가 때문에 고전 교육과정의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칼빈 역시 희랍과 로마의 고전적인 지식을 높이 평가하고 이것을 각급 학교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성스러운 직업과 세속적인 직업이라는 중세적 이원론을 극복하려 하였고 자연 질서에 새로운 권위를 부여하였다. 그래서 세속적 직업에 성스런 중요성을 부여한 것은 직접, 간접으로 그 후의 사회, 경제사에도 대단한 의미 있는 것이었다.

칼빈은 제네바 시의 학교설립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그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법을 작성하는 데도 직접 참여하였고, 제네바 아카데미를 직접 설립 운영하였다. 그는 제네바 아카데미를 통해 교육 사상을 이끌어갔다.

제네바 아카데미는 신학, 법학 또는 히브리어, 헬라어, 교양 분야에서 온

세상에 그 명성이 널리 알려진 탁월한 분들의 평판과 진가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해왔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교수들 밑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자들은 매우 학식이 풍부한 자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제네바 아카데미는 철저한 목적 지향의 교육(goal-oriented education)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대학들이 자유시장 경제논리에 기초하여 수요자 지향의 교육을 시행하는 것에 모든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 이론과 실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항상 교육 목적이어야 한다. 학교의 교육 목적에 따라 다른 모든 교육의 내용과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 2. 기독교교육에 주는 시사점

### 가. 에라스무스

에라스무스 자신은 신학과 인문주의의 접목을 시도하였다. 그는 일반문학과 성문학을 서로 연계시킬 수 있는 지점을 모색하였고, 그 점을 성경에서 찾았다. 그는 플라톤의 이원론적 인간이해를 기독교적 이해와 접목하여 이성적이고 기독교적인 태도와 덕목을 잘 갖춘 이상적인 인간성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에라스무스는 이러한 인간과 교육의 이해에 종교개념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있다. 그에게 종교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측면들 중의 하나로 인간이 완성되려면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성숙되어야 하고, 따라서 종교교육도 다른 언어교육과 예술교육, 예절교육 등과 나란히 그가 추구하는 인간완성에 기여하는 한 통로로 이해되어지고 있다. 그는 인간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교육되어야 하듯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교육되어야 하고, 이것을 통하여 인간이 보다 완전해 질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의 교육

적 사고 안에서는 인문주의적 교육개념이 종교 교육개념과 큰 내적인 갈등 없이 연결되고 있다. 그에게 종교교육은 이것을 그는 경건 교육이라는 단어로 주로 표현하였다. 다른 영역, 특히 도덕교육과 크게 구별 없이 인간완성을 위한 교육의 한 영역으로 이해되어지고 있다.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의 교육적 사고에 보게 되는 관점들과는 분명히 거리가 있는 입장이다. 참된 기독교인 됨이란 그것이 교육이라는 통로로 오든지, 설교를 통하여 오든지 철저히 인간 외부의 초월적인 힘, 곧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가능한 것이다. 인간의 인간 됨과 자연적인 인간의 상태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것들이 부정될 때 비로소 올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인간 됨과 기독교인 됨 사이의 본질적인 상이성이 이들에게 중요하다. 기독교교육은 따라서 이러한 구조와의 관련성 속에서 바로 숙고되어야 한다. 개혁자들은 이 문제와 깊이 있게 씨름하였고, 서로 양상은 다를지라도 이러한 본질적 문제와 교육적인 관계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이 시기의 종교교육을 일반교육학과 큰 구별지움 없이, 넓게는 인간의 완성을 위한 도야와 교육의 개념 안에 포괄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졌다.

## 나. 루터

루터는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고 후원하므로 그리스도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을 통하여 바른 교육을 받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교리적 훈련을 받아야 하며, 이것을 위하여 교리문답,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등을 배워야 함을 강조했다.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모든 가르침과 연구의 표준이 될 수 있는 학교의 설립을 통치자와 국민들에게 권고하였다. 성경은 교육이 그 기초를 두어야 할 신앙과 생활의 규범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과 관계된 근본적인 문제를 취급하여야 하고, '전인적 인간'을 위한 평생 교육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기독교 학교의 교과과정의 중심이 성경이

라는 종교교육의 중요한 기초를 닦았다고 할 수 있다.

루터에 의하면 신앙과 이성이 공존할 때, 인간은 지혜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신앙측면은 종교적 입장하고, 이성의 측면은 교육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종교와 교육이 상호 작용하여 화평한 사회를 이룩하게 된다.

도덕교육은 인간으로 하여금 삶에 있어서 윤리적인 규칙과 생의 원리를 준수하도록 훈련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종교교육의 목적은 신과의 관계에서 경건한 태도를 갖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인간은 교육에 의하여 개선된다. 그러나 이것은 종교적인 입장에서의 본질적인 부분이 개선된다는 뜻은 아니다. 즉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타락한 죄의 인간에게는 교육만으로 본래상태로의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다만 신에 대한 신앙과 이성을 통해서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회복되는 것이다. 루터에 있어서 종교의 세계에는 사랑과 용서와 평화와 기쁨이 공존한다. 교육은 신앙과 이성을 통해서 이 종교의 세계를 이 세상에 실천코자 노력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 사상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려면, 먼저 위정자들의 확고한 종교에 대한 가치관이 수립되어야 하며, 가르쳐질 종교들이 국민적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보여 진다.

## 다. 칼빈

칼빈은 한 사람, 한사람이 철저한 자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 람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책임 있는 주체자를 교육하는데 그의 교육 적 역점을 두었다. 그것은 규칙과 교육을 통한 생활이라는 형태로 규정되 어 있었다. 칼빈에게 있어서 규율 있는 훈련을 받는 일은 중세기 수도원에 서 강조된 침묵의 복종과는 달랐다. 복종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책임 있는 주체자의 형성을 위해서 규율이 극도로 중요시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제네바를 중심으로 하여 신정정치를 실시했는데 교육과 봉사라 는 두 구조가 확립되도록 철저했다. 칼빈은 제네바 시 전체를 신앙공동체

로 이끌려고 훈계와 교육으로 마치 학교 같은 분위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는 제네바시를 학교보다 오히려 교회와 같은 신앙훈련이 실시되는 것을 원했다. 교회와 제네바시, 교인과 시민, 교회안과 사회를 분리시킬 수 없었던 설정에서 불가피하게 교회와 제네바시정이 연합체가 되었다. 칼빈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선교를 통해서 사회에 바른 영향을 실현하려는 가르침을 주려고 힘용 기울였다. 교회가 민주사회를 영도하려면 교회는 시민사회를 계몽하고 교육하며 시민정부는 교회의 선교를 이해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신념을 실현시켰다.

칼빈은 ‘독트리나 수업’은 신자들에게 신앙의 성장을 가능케 하는 교회의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이다.

칼빈은 모든 영역에서 교육적인 차원으로 보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교육하시는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는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교육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라고 생각하였다. 교회는 하나님이 인간을 교육하시는 교육의 장소이다.

제네바 아카데미는 동시대의 관행을 깨는 혁신적인 인사조치를 통하여 경건하고 유능한 교수들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오늘날 대학 교육의 승패는 훌륭한 교수의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확립된 교과과정의 핵심적인 특징은 신앙(신학)교육과 인문주의 교양교육의 통합이었다. 교과과정에서 신앙교육에 대한 최우선적인 배려가 있었으나 인문주의 교양교육의 통합이었다.

교과과정에서 신앙교육에 대한 최우선적인 배려가 있었으나 인문주의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하지 않았다. 이러한 교양교육(언어와 인문학)에 대한 강조는 목사를 양성하는 신학교육의 과정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학생들의 미래 사역의 현장을 내다보면서 이론과 실제의 통합을 모색하였을 뿐 아니라, 교육의 방법과 강조에 있어서도 항상 새로운 시도를 통한 차별화를 추구하였던 제네바 아카데미의 교육적 노력을 배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칼빈은 구체적인 교회의 교육이론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에게 의미 있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제시하는 학자로 평가될 수 있다. 그리고 ‘교육신학적 사고’가 그를 초시대적인 기독교교육적 사상가로 평가하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그의 신학 안에는 다른 신학자들에게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교육신학자인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

<표Ⅶ-1> 에라스무스, 루터, 칼빈의 교육이 주는 시사점 비교

	에라스무스	루터	칼빈
일반 교육 (차이점)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차원의 교육	초등교육에 영향 공교육과 보편교육	교양교육을 강조 목적 지향의 교육
기독교 교육 (차이점)	신학과 인문주의의 접목	가정, 학교, 교회에서의 성서를 통한 종교 교육	교육신학적 이론을 정립
공통점	인문주의 바탕인 ‘이성’과 종교적인 ‘경건성’을 발전시켜 나갔다. 사회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접목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가정, 학교, 교회로 이어지는 교육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학교교육에 많은 관심과 변화를 요구하며, 그 시대적 요청의 교육에 조화를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였다.		

## VIII.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에라스무스, 루터, 칼빈의 교육사상을 서로 비교하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에라스무스, 루터, 칼빈의 개혁운동은 교육이라는 무기를 통하여 기존의 틀에서 탈피하는데 적절히 사용하였고 효과 있는 방법이 되었다. 이들은 교육이 인간을 바꾸어 놓고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고 변화시키며 사명을 완수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있었다.

인간이해에서 에라스무스는 이성의 중요성을 말하며, 이성은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중시하였고, 자유의지가 인간의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루터는 이성은 신적인 것을 깨달을 만한 통로가 될 수 없다. 외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힘만이 가능하다. 그리고 노예의지론을 말한다. 인간은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지가 아니다. 구속된 의지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한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이성을 말한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악의 노예의지가 되어 있다.

교육목적에서 에라스무스는 성서와 인문교양을 중심으로 하는 경건한 신앙인의 양성이라고 할 수 있다. 루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궁극적이며, 곧 하나님과, 인간과,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했다. 칼빈은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교육사상의 기초이다. 인간의 교육과 생활, 삶의 유일한 목적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교육내용에서 에라스무스는 그의 저서, 성서, 교부들의 교전을 내용으로 가르쳐서 진리를 발견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신체교육, 언어교육, 예절교육, 음악교육 등을 중시하였다. 루터는 성경을 기본 교육으로 하였고, 자국어로 성경을 읽기 위하여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였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언어교육을, 신앙증진에 효과적이고 유익을 위해 음악교육을, 만민에 의한 신앙의 평등 확대를 위하여 대중교육 등이다. 그리고 요리문답



서를 만들어 그것을 교육의 내용으로 삼았다. 또한 전통적인 자유예능과목, 즉 문법, 논리학, 수학, 기하학, 그리고 천문학 등을 역시 중시하였다. 칼빈은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바로 교육내용이며 하나님은 교사이시며 선생이시라는 것이다. 그는 성경의 해설서인 주석의 간행과 교회의 각종 규범을 정리하고 교리문답서의 간행과 말씀의 원리 등 구체적 교육내용을 정립하였다.

루터나 칼빈이 쓴 교리문답은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독교교육의 형태에서 가정교육이든지, 학교의 종교수업이든지, 교회의 세례와 입교교육이든지를 막론하고 핵심적인 교과내용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교리문답은 단순히 종교수업의 교과서로만 쓰인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는 심지어 초등교육기관의 읽기와 쓰기 교본으로도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따라서 교리문답은 유럽의 커리큘럼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여 왔다. 이와 같이 교과내용의 갱신을 가져왔다.

교육방법에서 에라스무스는 교육의 세 가지 국면을 말하였는데 그것은 자질, 수업, 연습이다. 자질은 타고나는 재능이나 자연적인 소질, 성향을 말하며, 이것은 수업을 통해서 발견되고,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 그의 교수방법에 체벌에 관해서는 체벌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되도록 피하고 사랑에 의한 서로간의 존중 속에서의 교육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조기교육을 통해 좋은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교수방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루터는 주입식 교육방법과 암기와 암송을 강조하는 엄격한 훈육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루터의 교육방법은 현대 교육방법에서는 상당히 비판을 받는 것이겠으나, 당시 16세기의 교육환경을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하여야 한다. 칼빈은 하나님 중심의 교육방법이다. 그의 '독트리나 수업'은 신자들에게 신앙성장을 가능케 하는 교회의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리고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실행된 토론과 강의법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교육방법은 요리문답에 의한 문답식 교육방법이다. 이들은 기존에 주로 사용되었던 교육방법인 '읽어주기-외우기' 도식에 '설명하기'의 방법을 더 추가하였다. 이와 같이 교육방법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교육실천에서 에라스무스는 인본주의 교육, 저술을 통한 교육, 공동문화 설립을 통한 교육실천이며 신학과 인문주의의 접목을 시도하였다. 루터는 가정, 교회, 학교, 국가를 통한 교육 실천이다. 그는 또한 직업을 위한 준비 교육이다. 칼빈은 학교을 교육활동, 제네바아카데미를 통한 공립학교 설립을 설립하여 시민교육을 하였고, 목회를 통한 교육활동, 저작과 각종문서를 통한 교육활동을 펼쳐 나갔다.

교육이 주는 시사점에서 에라스무스는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차원의 인간의 완성과 도야의 개념을 추구하였고, 인문주의적 교육개념과 종교교육 개념의 조화를 모색하였다. 그리고 교사 중심의 교육패턴을 벗어나 어린이의 개성과 소질들을 파악하여 그에 맞게 교육해야 한다. 루터는 초등교육에 영향을 주어 공교육과 보편교육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독교학교를 설립하여 그리스도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가정과 교회에서는 성서를 통한 종교교육의 중요성과 실천을 강조하였다. 칼빈은 기독교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칼빈의 교육사상에서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전인격적이며 전공간적인 부분이 교육의 영역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육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칼빈은 목적 지향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시종일관 하나님을 알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데에 그의 교육 목적이 있었으며, 모든 교육활동들을 그것에 맞추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칼빈의 교육은 삶과 삶이 일원화되었다. 칼빈은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의 뜻을 밝힌 성경말씀대로 사는 삶을 주장했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내적 조명으로 이해되고 힘을 얻어 삶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에라스무스의 인본주의 교육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은 교육의 기능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보다는 사회적이며 윤리적인 차원에서보다는 사회적이며 윤리적인 차원에서 논의했다는 점이다. 또한 에라스무스는 국가에 대한 충성과 봉사를 모든 시민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로 규정하면서 교육을 통해 이를 증진시키려 했다.

루터의 교육사상은 현대의 교육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 대중교육을

시작했고, 대학교육의 목적을 갖도록 하는 교육체계의 기초를 마련했다. 그는 크리스찬의 고상한 교육사상을 만들기 위하여 교수와 훈육을 통하여 모든 생활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직무를 수행해야 할 길을 마련하였다. 그는 교회와 국가를 위하여 학교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교사의 직무에 대한 권위와 가치를 강조했다. 또한 학교를 개혁하는데 있어서 지도자였으며, 학년별 수업을 실시하였고, 발견된 연구의 과정과 합리적인 교수방법을 소개하였다. 그는 어린이의 능력에 따라 교수를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발전시켰다. 그는 국가가 의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Painter, F.V.N, 1989: 167-168).

칼빈의 교육사상을 통해 우리는 한국교회가 평생 교육커리큘럼과 학원사업에 더 적극성을 띠어야 한다는 점을 배울 수 있다. 칼빈은 청소년교육과 더불어 성인계속교육을 통한 끊임없는 관심과 재교육을 하여 평생토록 하나님께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교육목회를 하였다. 그는 제네바 아카데미를 통해서 인문주의 교육과 성경교육의 조화를 꾀하였으며, 목회자 양성과 사회지도자 양성을 통해 제네바의 신정정치가 세상 속에 보편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는 교리교육에 재해석을 통해, 아동중심 교육과의 대화를 통한 현대적인 적용을 한다면 현대 교육에 많은 유익을 줄 것이다.

철학이 없는 교육은 무너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굳건한 교육철학과 사상을 기반에 둔 교육은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그런 점에서 에라스무스, 루터, 칼빈의 교육사상을 반추하여 그것이 주는 모범과 교훈을 오늘날의 교육현장에 적용하면 상당한 교육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강용원(1978). **칼빈의 교육활동과 그 의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 강희천(1992). **에라스무스의 교육사상**. 오인택외. “기독교교육사”. 서울 : 도서출판 교육목회.
- \_\_\_\_\_ (1999). **기독교교육사상**.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 고용수(1989). **칼빈의 교육사상**. 장신논단 제 5집.
- 김기숙(1994). **칼빈의 신지식에 입각한 기독교교육의 원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 김남식(1972). **칼빈주의 연구**. 서울 : 백합출판사.
- 김명신(1996). **위대한 교육사상가들 I**. 연세대학교 교육철학회편. 서울 : 교육과학사.
- 김명일(1985). **마틴 루터의 교육사상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 김요셉(1999). **인문주의자들과 종교개혁자들의 성경관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 김평중(2003). **서양중세사연구(2003년 9월 제12집)**. 한국서양중세사학회.
- 김호현(1986). **마틴루터의 교육사상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김희권(2001). **에라스무스와 루터의 自由意志 論爭의 比較研究**. 석사학위논문, 영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 김희환(1996). **기독교회사**. 서울 : 성광문화사.
- 로버트 로잔(2000). **교육자루터 : 일반교육에 끼친 그의 공헌**. 루터연구. 루터 신학대학교 루터연구소 학술저널.
- 박원필(1995). **루터의 가정교육론**. 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 박종숙 옮김(1998). **에라스무스**. 롤란드 베인턴. 서울 : 현대지성사.
- 배성엽(2003). **칼빈의 교육사상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백종신(2002). **에라스무스와 루터**.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선봉기(2000). **에라스무스의 교육사상**.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 손원영(2001). **프락시스와 기독교교육과정**.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 \_\_\_\_\_ (2002). **기독교교육의 재개념화**.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 양금희(1999). **종교개혁의 교육사상**. 서울 : 장로교출판사.
- 오인탁(1992). **기독교교육**. 서울 : 종로서적출판사.
- 원광연 역(2003). **기독교강요 상, 중, 하**. Calvin, John. 서울 :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유성애(1997). **존 칼빈의 교육사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대학원.
- 유현철(2002). **칼빈 교리교육에 대한 현대교회의 적용가능성**.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 윤두호(1979). **루터와 칼빈의 교육사상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 은길관(1992). **기독교 교육사**. 서울 : 도서출판 교육목회.
- 이승구역(1990). **현대기독교교육**. Harper Norman E. 서울 : 엠마오.
- 이승기(1988). **루터와 칼빈의 기독교 교육사상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 이양호(1997). **칼빈의 생애와 사상**. 서울 : 한국신학연구소.
- 이오갑 역(1995). **칼빈 사상의 성격과 구조**. Dunmerg, Emile.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 이종성(1973). **칼빈의 생애와 그의 위치**. 전통과 혁신, 서울 : 세종문화사.
- 이형기(1990). **전통과 개혁**. 서울 : 대한예수교장로회 출판국.
- \_\_\_\_\_ (1984). **종교개혁 신학사상**. 서울 :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 \_\_\_\_\_ 편역(1994). **루터의 신학**. Althaus, Paul. 서울 :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_\_\_\_\_ 옮김(1995). **기독교강요 요약**. Calvin, John. 서울 :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_\_\_\_\_ 역(2001). **즈네브 교회의 요리문답**. Calvin, John. 서울 :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_\_\_\_\_ (2001). **칼빈의 신앙교육서**. Calvin, John. 서울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 정웅섭(1957). **칼빈의 청소년 교육과 그 이념**. 한국신학대학교 제3집.
- 정일웅(1984). **KATECHISMUS 교육에 대한 연구(I)**, 신학지남 51권4집.
- 정정숙(1983). **칼빈의 교육사상연구**, 신학지남. 199호 가을.
- \_\_\_\_\_ (1983). **종교개혁자들의 교육사상**. 서울 : 총신대학 출판부.
- \_\_\_\_\_ (1991). **종교교육자들의 교육사상**. 서울 : 컨콜디아사.
- 조일구(1987). **루터의 교육사상연구**.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 지원상(1980). **마틴 루터의 생애와 사상**. 서울 : 유평출판사.
- 지원용(1961). **루터의 사상**. 서울 : 컨콜디아사. 189호 겨울.
- \_\_\_\_\_ (1965). **루터와 종교개혁**. 서울 : 컨콜디아사.
- \_\_\_\_\_ (1980). **말틴 루터**. 서울 : 컨콜디아사.
- \_\_\_\_\_ (1991). **루터의 사상**. 서울 : 컨콜디아사.
- \_\_\_\_\_ 편역(1983). **루터선집**. Luther, M. 서울 : 컨콜디아사.
- \_\_\_\_\_ (1985). **칼빈의 교리교육과 교회교육**, 신학지남 57권 1집.
- \_\_\_\_\_ (1991). **교육목회학**. 서울 : 한국로고스 연구원.
- 차영철(1999). **루터의 교육사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 최종환(1995). **에라스무스와 루터의 의지론 논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 한국일(1987). **칼빈의 인간론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 한명희(1997). **서양교육사 신론**. 서울 : 도서출판 아름다운 세상.
- 한철하(1965). **칼빈서거 400주년 기년논문집**. 이종성편.
- 한춘기(2000). **총체적 사역으로서의 교육목회, 기독교 교육논총**. 제6집.
- 홍치모(1984). **서구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서울 : 성광문화사.
- 황성철(1995).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칼빈의 교육신학 연구**, 신학지남.

47권2집.

- Bouswsma. W. J.(1988). **John. Calvi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oyd, William(1947). **The History of Westen Education.** London: Adams and Black.
- Campell Wyckoff. D.(1961). **Theory and Design of Christian Education Curriculum.**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 Elmer H. W.(1942). **The Foundation of Morden Education.** New York: Rinehant and Company, Inc.
- Erasmus, D.(1969). **On the freedom of the wil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 \_\_\_\_\_ (1990). **On Education for Children.** The Erasmus Reader. Toranto: University of Toranto Press.
- Gavey. C. B.(1965). **A History of Christion Education.** Chicago: Moody Press.
- Grimm, H. J.(1960). **Luther and Culture.** Decorah, Iowa: Luther College Press.
- Holl, Karl(1962). **The Cultural Significance of the Reformation.** Cleveland and New York: The World Publishing Co.
- Jaarsma. C.(1935). **The Educational Philosophy of Herman Bavinck.** Grand RapidsEerdman.
- Jan Waterrink(1954). **Basic Concept in Christian Pedagogy.** Grand Rapids: Eerdman Pub. Co.
- Calvin J.(1545). **The Catechism of the Church of Gneva.** Theolog: Cal Treatises.
- \_\_\_\_\_ (1955). **The Order of the College of Geneva.** The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X V III, trans. by W.

Stanford Reid.

- \_\_\_\_\_ (1958). **Catechism of the church of Geneva.** in Tracts and Treatises, trans. by H. Beveridge, VOL.II.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_\_\_\_\_ (1960).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by John T. McNeill, tran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 Luther, M.(1976). **Luthers Works.** V. 34. Philadelphia: Muhlenberg Press.
- Monter, E. W.(1967). **Calvin's Geneva.**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 Painter, F.V.N.(1989). **Luther of Education.** Philadelphia: Lutheran Publication Society.
- Reid. W. S.(1955). **The Academy of Geneva.**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18 Trans.
- Robert S. R.(1962). **The Doctrines of Great Educators.** London: Macmillan and Co.
- Schaff, Philip(1969). **History of Christian Church.** VolIII. Grand Rapids: Wm. B. Eerdmans.
- Van Der Kooy. T.(1925). **The Distictive Features of the Christian School.** (Grand Rapids: Eerdman pub. Company.
- Wilds, Elmer Harrison(1942). **The Foundation of Religious Educators.** New York: Rine Hart and Company, Inc.
- William Boyd(1947). **History of Western Education.** London: Adams and Black.



#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n the Educational Thoughts among Erasmus, Luther and Calvin

by Lee, Sang Oh

Major in Philosophy of Education  
Dep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Changwon, Korea

Advisor: Prof. Kim, Ki Min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and compare the educational thoughts of Erasmus, Luther and Calvin. Their religious or social reform movements properly and effectively used education as an instrument for escaping the existing structure. Education must be one of the greatest concern in their own lives and reform movem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On human understanding, Erasmus asserts the importance of reason, and that the free-will can choose human salvation. Luther mentions the salve-will. According to him, human being does not have a free-will to determine good and evil by oneself. This is a redemptive will. Calvin talks about the absolute sovereignty of God. This is reason in the relationship with God.

The goal of education for Erasmus was to nurture petic religious persons depending upon the Scripture and liberal arts. For Luther the ultimate goal was to glorify God in Christ. This is to complete our duty to God, humanity and the State. For Calvin the goal was to glorify God as a being who lives in front of God. The Bible for him is

the foundation of educational thought.

On the content of education, Erasmus wanted to teach his own works, the Scripture and classical works of the early Fathers in order to discover religious truths. Luther believed that the Bible should be the basis of education, so he translated the Bible into German language for the German people to read it by the mother tongue. He emphasized language for understanding the Bible, music for strengthening Christian faith, and mass education for expanding Christian faith. He made catechism and used it as a content of education. For Calvin God's creation itself is the content of education, and God is the teacher. Calvin established concrete contents of education through publishing commentaries which interpreted the Bible, arranging the norms and orders of the Church, and publishing catechism. His catechism was not only used as a textbook for religious education but also a textbook for reading and writing in elementary schools in Europe. Catechism therefore held a significant place in the history of curriculum in Europe. This made reform the content of education.

On the educational method, Erasmus mentions three aspects of education: temperament, lesson and practice. Temperament is inborn talent, natural character and disposition. These will be discovered by lesson, and have a certain direction in the course of education. Corporal punishment as an educational method may produce a contrary result. He emphasized on forming good habits through early education and practice. Luther advocated the rigid tendency in education that stressed on the cramming and memory. Calvin's education can be characterized as God-centered education. He used discussion and lecture-type in the Geneva Academy. Particularly his education method was question and answer type of education by catechism.

On the practice of education, Erasmus put into practice, a kind of humanistic education, education through writing, and education for establishing common culture, and tried to graft together between theology and humanism. Luther's position was through home, church, school and the State. Calvin established public schools through the

Geneva Academy and educated citizens there. He expanded his educational activities through ministry, writing, etc.

Erasmus pursued integrated and wholeness of humanity, humanistic concept of education and the concept of religious education. Luther had influenced on both elementary schooling and public education. He founded Christian school and practiced Christ-centered education. He emphasized the importance on religious education and practice through the Bible in home and church. Calvin had enormously influenced on Christian education He pursued aim-oriented education. His aim of education was to know God and to glorify God.

Education without the basis of a certain firm philosophy will collapse. Education that has a steady foundation on educational philosophy and thought only can have a power to change a person. Therefore, if we apply examples and lessons of Erasmus, Luther and Calvin's educational thoughts to our present fields of education, we may obtain excellent results of education.